

제426회 국회
(임시회)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5일(수)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1.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069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069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종배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문위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청문위원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청문위원 상호 간에 또는 외부에서 청문위원을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만약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시거나 회의장 내 질서를 지키시지 않는 경우 엄중히 경고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청문위원 모욕, 명예 훼손 등과 함께 발언 중단 등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영상 출력과 관련해서는 발언하는 청문위원이 영상을 출력하시되 발언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원장이 출력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069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5분)

○위원장 이종배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종배** 의사진행발언, 배준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어제 저희가 그렇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했는데 들어온 추가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강력하게 경고해 주십시오. 어제 중국 출입기록, 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 내역 그리고 2004년 1억 8000만 원 대출 관련 상환자료, 2025년 대출 및 상환 1억 5000만 원에 대한 자료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어떤 자료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무대책 총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제 정부 예산과 국가 부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드러났습니다. 분명 부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결국 무자격 총리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다 지켜보셨습니까?

참고로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되었다는 보도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총리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어제는 후보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후보자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후보자님, 어제제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도 아직 제출이 안 됐는가 본데 지금 배준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든 자료 그리고 또 기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해서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다라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본인 질의시간을 정책질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청문위원들 간의 명예도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지금 총리후보자의 명예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상한 자금이라든지 현금 6억을 쟁여 놓고 썼다든지 또 일방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든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소명됐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어제 배준영 간사의 마지막 발언 그것은 청문 후보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 혹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정책질의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시간도 필요하오니 오후 일정을 빨리 좀 종결해 주

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질의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 더 이상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 가면서 근거 없이 펌훼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운영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위원님들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허위사실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자료 요구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도 청문회를 할 때마다 기준이나 관례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정부 한덕수 전 총리 청문회 당시에 거부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 당시 한덕수 후보자 본인의 예적금 계좌 가입 내역, 금액 현황 모두 거부했습니다. 부동산의 금전거래 내역도 거부했고요. 골프 회원권 자금 출처, 입출금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사인 간 채권·채무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생활 침해고 지금은 검증입니까?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공정해야지요.

재산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근혜정부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변호사 개업 후에 5개월 동안 무려 16억 원을 소득으로 벌었습니다. 전관예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고액 수임료, 자문이었습니다. 일반인은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을 올린 것입니다. 그때 자료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1년 반 동안 16억 원을 벌었고요 정홍원 전 총리는 2년 동안 6억 70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4년간 김앤장 고문료로 무려 19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성일종 청문위원께서는 굉장히 검약하게 사셨다고까지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성일종 위원 말씀대로라면 김민석 후보자는요 검약 정도가 아니라 자린고비 수준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또 여야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자료제출의 기준과 한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무리한 자료 요구 청문회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배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김희정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어제 우리 인사청문회 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계속 ‘정책 질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인사청문회 준비단들도 같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보좌를 함께 했던 직원들도 같이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위원들이 자리 이석 없이 다른 분들의 질의응답에도 귀를 기울이며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 마디 한 마디 놓치지 않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동안도 김민석 후보와 함께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의 뜻에 반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앞으로 같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저 직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지금 인사청문회를 전체 보이콧하는 후보자의 마인드가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자료 청문회라고 말씀드렸듯이 중인도 채택하지 않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한 그런 문건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가 개인정보 동의 안 했으니까 우리는 못 줘요’ 이런 식으로 어제 답을 보낸 것을 제가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렇게 잠시만 이러고 있었으면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지속적으로 저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염중하게 국회를 대하는 김민석 후보자와 그리고 보좌하는 직원들에게 이 태도를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후보자 영상은 부득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질의하는 위원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와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국회 인사청문위원을 대하는 태도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사실은 제가 수기로 받아 적었다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해서 오늘 아침에 속기록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우리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냐면요 ‘상식적인 상식인 이라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루 종일 설명을 하고 나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이해를 못 하신 상태에서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거 참 설명을 일반적 수준에서 이해되게 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낭패감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쭉 찍어서, 우리의 주진우 위원을 찍어서 ‘사실상 내용을 알고도 몇 해 동안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해에 있던 것처럼 해서 페이스북에 쓰신 것으로 보아 통상은 국회 의원들은 하지는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역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사과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제가 말씀을 하고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청문 자리입니다.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집중도 하시고 또 배석하시는 국무총리실 관계자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하고 필요한 서포트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위원이 불편한 그런 얘기는 삼가 주시고 청문위원을 존중하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저는 사과 받아 주실 것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후보자님,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주진우 위원 지적한 부분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상식적인 상식인 부분에서 저희를 상식적이라 하지 않으신 부분……

○**김현 위원** 김희정 위원님은 위원장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지요. 왜 후보자하고 일대일로 지금 질의 답변을 하십니까?

○**곽규택 위원** 간사님은 왜 끼어드세요?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김현 위원**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다 알아요.

○**김현 위원** 곽규택 위원은 왜 끼어들어요?

○**곽규택 위원** 다 알아요. 끼어들지 마세요.

○**김현 위원** 곽규택 위원은 왜 끼어듭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김현 위원** 야당 위원은 여당 간사에게 예의를 좀 갖추시지요.

○**위원장 이종배**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간사가 벼슬이에요?

○**박선원 위원** 곽 위원, 그만해요.

○**위원장 이종배** 조용히 해 주세요.

○**김현 위원** 예의 좀 갖추세요.

○**박선원 위원** 왜 우리 간사님한테……

○**김현 위원** 왜 닭에 비유하세요?

○**곽규택 위원** 하시는 거 뭐냐 말이에요, 지금.

○**김현 위원** 왜 닭에 비유하십니까?

○**위원장 이종배**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현 위원** 조금 전에 야당 간사께서 언론보도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경향 사설 ‘의혹 규명 못한 김민석 청문회, 야당 사퇴 요구 멈춰야’라는 제목의 사설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꼭 본인이 본 것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청문회에서 증인이 채택되지 못한 것과 관련한 동아일보 사설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일 날 저희가 협상을 했고요. 당시에 전처와 현재 부인의 어머님, 요양병원에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당시에 어머님은 증인 채택에서 빼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17일입니다.

18일 날 전체회의 전 13시 40분에 만났을 때 저희 측 증인 자료를 넘겼고 그전에 받았던 증인명단을 놓고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얘기했고 양측이 대략 5명에서 6명, 통상 총리 청문회 때 증인·참고인 수준으로 하자는 위원장의 제안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결렬됐기 때문에 증인 협상은 지속적으로 양당 간사가 해서 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던 것이 18일입니다. 19

일 날은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관계로 세종에 있어서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09시 55분, 12시, 16시 세 차례 했고요 전처를 철회할 테니 증인 중에 3인을 추가해 달라는 야당 간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2시에 만나서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애초에 합의됐던 4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으로 하자는 주장을 했고 그 자리에서 배준영 간사는 1 플러스 3, 즉 그동안 논의됐던 4명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3명 그리고 주진우 위원이 추가한 2명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고 5시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배 간사께서 연락이 없었고 5시경 위원장의 얘기로는, 위원장님께서는 ‘민주주의 원칙인 표결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종합하면 애초에 저희 측은 60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드렸고 야당은 23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인, 양측이 5인에서 조정하다가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소신에 따라서 결렬됐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것은 여야 간에 협상이 안 된 것 때문이지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반박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종배** 한말씀 하세요.

○**김현 위원** 반박하시면 안 되지요.

○**곽규택 위원** 왜 안 돼요, 의사진행발언하겠다는데?

○**김현 위원** 또 의사진행을 계속 하시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배** 한 분만 마지막으로……

○**곽규택 위원** 아니, 세 분 하셨잖아요.

○**김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배** 여기 세 분 했으니까 세 분만 하면 되지.

○**전용기 위원**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우리도 할게요.

○**위원장 이종배** 세 분만 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어제부터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으manız, 야당 위원들이 후보자께 물어보는데 여당 위원님들이 자꾸 대답을 하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에도 김현 간사님께서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도 안 주어졌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위원장님 말씀 중이지 않냐, 끼어드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간사가 말하는데 끼어든다’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간사가 무슨 벼슬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왜 동물에 비유하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김현 위원** 두 가지 뜻이에요, 두 가지.

○**곽규택 위원** 벼슬이라는 뜻이 짙은 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김현 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곽규택 위원** 그런 식으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쓸데없는 토를 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김현 위원** 그 발언도 적절하지는 않아요.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는 동안에 갑자기 다른 위원이 끼어드는 이런 것은 법사위에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 질문 내용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질문 시간에 지적을 하는 것은 몰라도 끼어드는 것은 회의 진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곽규택……

○**김현 위원** 아니요, 제가……

○**위원장 이종배**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김현 위원** 이것도 끼어든 것은 아니지요,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용기 위원** 좀 들어 주세요. 어차피 의사진행발언을 회의에서……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제가 판단하는 데……

○**김현 위원** 아니,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제가 물을 때 얘기하세요.

○**배준영 위원**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시고, 야당에서도 한 분 더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 모두발언에서 인사청문위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인사청문위원을 존중하라고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왕조시대도 아닌데요 인사청문위원의 질의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분들이 어제 사실 우리가 11시 반까지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약간씩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면구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차라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건 후보자를 공격하는 게 어려우니 오히려 후보자를 보좌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어제 후보자께서 특정 SNS에 대한 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다른데 그것이 SNS에 올라가 있고 그냥 박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자는 그냥 인사청문 대상이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박제된 상태로 계속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오히려 존중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조금 정시에 제대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오늘은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준영 위원님 발언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민주당 간사님이 저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인 협상하는 내내 민주당 간사님은 국정기획위원회 때문에 세종시에 가셔서 얼굴 뵙기가 힘들었고 저는 전체회의 전날 4시에 만났을 때 온전한 23명 리스트를 다 드렸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친전으로 해서 저한테 보좌관이 갖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이후에 전체회의가 2시에 시작되기로 했었는데 제가 김현 간사님을 만난 것은 1시 59분에 만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23명 갖고는 진행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여기 청문위원님들 다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6명을 제시하겠다. 그 안에는 전처도 계셨는데 전처를 하면 도저히 안 받겠다 그래 가지고 수상한 금전 의혹에 관련된 딱 5명만 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최종 오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핵심 중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 가지고 그 이후에 논의가 진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인이 없는 무증인의, 25년 만이지요, 총리 청문회 이후 처음인데 그 책임을 안 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수당이고 여당이고 협상에 그게 있으시고 표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임을 나누자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거부합니다.

민주당이 그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위원 우리한테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손 들게요.

○위원장 이종배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약속한 대로 했으니까……

○전용기 위원 아니, 여당 위원이 7~8명인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김현 위원 야당 간사는 두 번 주고 여당 간사는 한 번 주면 부당하지요.

○위원장 이종배 숫자에 맞춰서 했습니다. 여야 숫자 맞춰서 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는 7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아니, 위원장과 간사가 같은 당이고요……

○위원장 이종배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여당은 저 1명인데 세 분이 얘기하면 세 번 얘기하고 여당 간사는 발언권

안 주는 것은 부당한 진행 방식인데요.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세요.

○김희정 위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배 예, 질의하세요.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김현 위원 요즘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같은 당에서 위원장과 야당 간사는 네 번 얘기하고 여당 간사한테 한 번 주는 게 온당한 진행 방식입니까?

○김희정 위원 김현 위원님, 제 질의권 받았습니다.

시작할 테니……

○위원장 이종배 위원장이 판단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질의하세요.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어제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미처 해결되지 못했거나 하시는 말씀 중에 앞뒤 말이 번복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신성 씨 관련되어서는 어제 언론에서도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강신성 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받을 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증거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배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세금 빼서 갚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농사하는 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때 당시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을 투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희정 위원 2억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우리 위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거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100%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은 한참 후에, 아마 상환을 못 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희정 위원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강신성 씨와의 돈 거래 내역이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또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배춧값 투자……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게 왜 투명하지 않지요?

○김희정 위원 증거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주소지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질문한 것에 뭐라 그랬

냐면 ‘우편물을 수령을 위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해외에 가 계실 동안. 그래서 주소를 봤습니다. 제가 어제도 러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표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저기 보시면 실제로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아닌데 거기 주소를 옮겼더라고요. 그러면 저기가 주소가 아니면 실제 어디에 사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계속 저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나오는 시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 그리고 2011년 이렇게 본인이…… 심지어는 다른 가족들도 다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해외에 나가 있을 동안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소를 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도표를 만든 저는 김민석 후보님과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지 않은 시기에 주소를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뒀던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답변 중에는 ‘주소지만 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 배우자나 그리고 어린아이였던 장녀와 장남도 계속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를 동안에.

그런데 후보님은 ‘여기에 주소만 뒀지 나는 여기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후보님은 실제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혹시 그렇다면 당시 저나 전 배우자와 가족들이 실제 거주했던 다른 장소가 어디 있었는지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김희정 위원** 그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 당시에는 이미 제가 해외에 나가서 유학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국내에 집이 없던 시기여서 제가 일시 귀국을 하거나 또는 제가 아닌 다른 가족들도 국내 주소를, 거소를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아마 거기에 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다른 어떤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제가 후보님께서 직접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008년 초에도, ‘2008년 2월, 3월에 가족들이 귀국하게 되어 있었는데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후보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그런데 가족들은 2008년 2월, 3월에 귀국하게 되어 있어서 거주할 집도 없었던 와중에 어떤 분께서 전세금이라도 하라고 1억 5000만 원가량을 보내 줬다’ 이렇게 발언하는 게 나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맞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본인도 오피스텔에 있었다라는 게 나오고 가족들도 그때 귀국했다라는 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정되어 있었다고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김희정 위원 그러면 귀국을 안 했는데……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귀국해서 국내에 저와 저희 가족들의 거소가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희정 위원 그리고 나서 들어온 이후에 주소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래서 제가 그것을 표현을, 가 보시면 알지만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당시 살고 있던 전셋집을 정리해서 가족들이 미국에 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명확한 거처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특별한 위장전입에 관련된 일도 아니고 그다지 본질적인 일로 보이지 않아서 저것을 여쭤보시는 특별한 사유를 명료하게 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예,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60개월 동안 해당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는 과거에는 실거주를 하고 생활용으로도 이용이 됐던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거나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1억 5000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데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주소도 현재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신성 씨와는 지속적으로 이런 이해관계가 얹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당시의 본인 주소로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실제 거주했던 실주소지를 증명된 확실한 공문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 때 저기에 제가 거소를 두고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국내에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중간 말씀하신 전입이 되었던 부분은 제가 거주한 부분이 아닌 다른 단체가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 주소가 있었던 시기를 연동해서 혼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단체가 있을 때도 후보자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제 명의는 없습니다. 제 명의의 소유가 아니라 아마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혹시 거기에 제가 주소지를 뒀다 하는 문제인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국내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당연히 국내에 거주하는 집에 주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리하고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에 거주하고 제가 국내에 왔을 때는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특정한 곳을, 편의를 볼 수 있는 곳에 주소를 뒀겠지요. 그렇게 주소를 뒀던 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어떤 본질적인 청문회의 취지가 있다면 잘 말씀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추가질의 때, 추가 보충질의 때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 것을 제가 말씀드렸네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이제 이틀째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는 목적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그중에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이 무엇이냐,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거냐,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철학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둘째 날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저는 첫 번째 국정과제 내지는 원칙, 내란 종식, 내란에 대한 잔재를 완전히 정리하는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제2의 IMF라고 표현되는 그런 상황,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에 대한 경제 기조로서 감세 정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각 의제별로 죽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저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설들 쓰시는 것 또는 글들 쓰시는 것 좀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적들 중에서 개인사 공방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정치인으로서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가 좀 있습니다. 되게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또는 청문위원이 그것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검증은 검증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선을 지키고 갈 거냐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해명이 될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하루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동안에 공방하는 과정 속에서의 후보자 입장에서 개인사 공방을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되는 것이 적절하나에 대한 소회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어제 청문회에 임하면서 이 자리에 제가 청문위원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이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책과 신상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최대한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난감합니다.

몇 가지를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신상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거나 또는 야당 위원님들이 수상한 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부분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첫째는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과 검찰, 검사까지도 증언을 할 수 있게 증인으로 불러 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검찰 내의 하나회 조직 같은 것들이 관련돼 있었다 하는 것들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저도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지난 한 20년간의 각종 수입은 다 그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그리고 추징과 연관된 증여세 그리고 또 이것을 갚기 위한 사적 채무 세 가지를 갚는 데에 쓰여졌습니다.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서 증여세를 정리했

습니다. 또 사적 채무를 일으켜서 마지막 사적 채무를 다시 대출을 통해서 갚았습니다.

축의금, 조의금, 두 번의 출판기념회 등등이 있었습니다. 사적 채무는 지인들에게 매우 투명하게 빌려서 다 갚았습니다. 세비도 매달 500~700 정도로 해서 아마 국내에서 평균적으로 아주 드물 정도로 추징금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출판기념회와 축의금, 조의금 등은 평균 출판기념회는 권당 5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일반의 눈으로 봐서는 큰돈이지만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모님에게서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그때그때 받았고 다행히 이것은 계좌를 통해서 받거나 또는 그때그때 카드값이 없어서 돈을 이렇게 쓰 빌려서 다시 그 통장에 채워 넣는 것이어서 종합하면 사실은 완전하게 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지원금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중여세까지 내고 나니까 우리 전용기 위원님이 제가 사실은 2억을 불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실제는 정치자금 빼고 한 6000 정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중여세까지 내고 나니까 사실은 잔고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출판기념회의 자료를 내야 되는가? 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정치 신인들 한편으로는 정치 전체에 대한 저의 어떤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당의 의원들, 야당의 대표들도 출판기념회를 했고 그것을 재산 공개나 신고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의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처 또는 아이들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어제 말씀 중에 제가 마지막에 주진우 위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미 과정 중에서도 드러났고 그 이전에도 드러났지만 그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도 몇 해 동안 분산돼서,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 놓았다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 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에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당치가 않다. 이미 저는 수사로 배당되어 있는데 동일한 케이스로 고발된 상대의 다른 경우에는 배당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데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아닌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저는 어제는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낭패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위원장님께 필요한 자료를 또 말씀 주시면 적절하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기형 위원 이야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 하겠는데 이따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야당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언론보도 아까 언급했는데요. 강신성씨 업체의 소유 토지가 7년 만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그 내용인데, 이게 후보님과 뭐 관련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분이 어떤 사업을 최근에 하고 있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지난번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서로 피해를 본 이후에는 그분이 체육회의 부회장을 하시면서 성실하게, 우리나라의 아주 비인기종목이었던 것들을 금메달을 만들어 내는 데 애를 쓰셨고 또 체육 관련한 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이어서 그와 관련된 대화는 하더라도 나머지 일체 금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사업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채현일 위원**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오로지 후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 같은 것은 삼갔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제 서면질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가 참사를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광주 민주항쟁,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런데 특이한 게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한 광주 민주항쟁, 국가권력이 국민의 희생을 막지 못한 세월호 참사, 국가권력 해서 국가권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학생 때 서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재판에 임했을 때 정부와 정권을 구별해서 표현했던 생각이 지금 납니다.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이지만 권력에는 또는 정권에는 그 정부를 구성하는 세력의 지향이라든가 이런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국민을 학살하거나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재난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너무 아픈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당시에 국정의 방향을 맡고 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국가권력을 표현한 것이 무의식 중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마 이 표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성찰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늘 언급하는 것은 국민주권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입니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항상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해서 국가나 국민에게 위태롭게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하루하루가 저희들도 그렇지만 온 국민이 힘들었습니다. 쟁버리 사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해병 사건 등 각종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의 고위공직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고요.

가장 결정적인 사례는 이태원 참사입니다.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요?’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지요. 총리도 장관도 구청장도 경찰청장도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용산구청장은 지금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후보께서 정확하게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가 3년밖에 못 하고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은 망할 짓…… 저는 이태원 참사를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공감 능력도 없고 유체 이탈의 그런 자세, 그때부터 이미 정권의 몰락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는 만약에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러한 국가권력, 책임 또 향후에 어떤 재난에 대한 대응 자세나 시스템, 어떻게 바꾸시려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언젠가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선 기초단체장 행정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쓰레기하고 주차 이런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일선행정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국가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안전과 민생,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국민들이 왔을 때 그래도 의미 있는 관광지로 되는 이유 하나는 총기가 없고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은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이런 것들이지요.

저는 총리가 된다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 왔던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전력을 다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리고 그것을 일상적으로 늘 점검하는 일에 제가 가지고 왔던 정책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으로 하여금 국정 그리고 이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실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기는 하지만 총리가 된다면 총리는 그렇게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 곳을 채우거나 아니면 불의의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일어나서 대통령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민생과 안전에 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준비 과정 중에 어떤 분들이 ‘차관 대동’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재난 관련한 센터를 꼭 보고 싶어서, 수해 등등이 예상되어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서울시의 지하 센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가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거기를 허락해 주셔서 갔을 때 관련 차관도 함께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제 폐북 글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저에게 조작 프레임을 자꾸 뒤집어씌우시니까 제가 폐북 내용을 공개하겠

습니다.

쟁점은 간단해요. 저는 부의금 1.6억, 출판기념회 1억 그리고 또 1.5억 해서 2.5억, 3년 사이에 있었고요. 다 현금이고 해마다 그때그때 12월 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 안 했다 이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주장이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출판기념회가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출판기념회에는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오는데 지금 당시 방명록 같은 게 남아 있지 않아서 이해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방금 후보자께서는 책 권당 5만 원씩 받았다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책 권당 5만 원씩이라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출판기념회는 권당 5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책 권당 5만 원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녹취록 한번 보시면 알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평균 그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권당 가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위원** 책 권당 5만 원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출판기념회가 오랜 관행인지 몰라도……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권당 5만 원은 가격이 아닙니다.

○**주진우 위원** 이해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계속 비판을 해 왔어요. 언론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고 분명히 후보자 입장으로 네 번의 이벤트에 6억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의 이벤트당 1억 5000만 원 정도 되겠구나 하고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 폐북 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폐북 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자꾸 조작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직전 글이에요. 2019년 12월 12일 결혼 축의금은 같은 달 31일에 현금 보유 등록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2일, 날짜 다 명기했습니다. 빙부상 조의금, 왜 말일 기준으로 등록인데, 12월 31일까지 얼마 안 돼요. 아까 추징금 한 번에 다 갚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1월 2일 조의금을 받았으면 11월 3일에 추징금 다 갚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지요.

출판기념회 날짜도 분명히 명기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각각 해당 연도 말일에 등록했어야 된다. 이게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 후보자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현금을 받아서 그 당시에 등록을 했다면, 쓰지 않고, 그랬으면 무려 공직자 재산등록만 여섯 번을 해야 되고 또 후보자 등록으로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주장은 그거예요, 재산등록 이전에 다 써 버렸다. 이 돈의 성격을 잘 보여 주는 거예요. 원래 재산등록은 후보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변동사항도 비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이 됐어

요. 그런데 그걸로 자동차를 샀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중간에 그게 1년 사이에 등록 기준일 이전에 다 해당돼도 2000만 원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부정한 돈이 아니고 1000만 원에서 주식투자해서 1000만 원 번 돈이 자동차값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12월 31일 전에 다 소진을 했어도 사실은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을 비고란에 다 적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적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은 모든 이벤트마다 다 써 버려서 등록 안 했다는 건데 절차적으로 이게 딱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글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미있게 쓰려고 정치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풍자의 영역은 저는 허용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기 날짜에 보십시오. 순서대로 썼어요.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수억대 현금…… 제가 언제 6억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벤트가 다른데 어떻게 6억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6억이나 줄 때 다 각각 준 사람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표현에 썼습니다, 직관적으로 아신 게 ‘챙여 놓은 금액이 6억이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쟁여 놓다는 표현의 뜻이 뭐니까?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보십시오. 후보님, 보세요. ‘따로 떼어 놓아 보관하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몰래 감추어 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쓰신 표현입니다. ‘장롱에 넣어 두면 이자가 붙냐’ 이런 표현 쓰셨어요.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금계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투자자산에 투자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 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날짜가, 제가 그 폐북이 바로 붙어 있어요. 날짜가 다 구분한 것을……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조작이라고 생각되는 설명을 조금 이따가 조금 전 이메일을 다시 올려놓고 해도 될까요?

○주진우 위원 앞부분 이메일 한번 띄워 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기 보면 날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폐북을 보면 이벤트의 순서대로 썼습니다.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그리고 그 바로 앞의 폐북에 보면 연도와 날짜가 정확히 기재돼 있고 그 당시 언론보도 보십시오.

후보자님이 결혼한 지 며칠이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한 달에 안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이랑 저랑 방송에서 순차적으로 토론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용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조작하냐? 한 번에 6억 받은 거 아닌데 다 합쳐서 받은 것처럼 왜 조작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자가 오히려 반박을 해 주셨어요. ‘아니, 주진우 의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네 번의 이벤트니까 6억이면 1억 5000이니까 역대를 받아서 어떻게 재산등록일 한 달 전, 두 달 전에 1억 5000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느냐’.

일반 국민이 20일, 30일, 40일 만에 현금 1억 5000 쓰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어떻게 씁니까, 현금 1억 5000을?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진우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진우 위원님께서 본인이 썼던 폐북이 국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진우 위원** 좀 띄워 주시고 한번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펼쳐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 지워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니까요.

국민들에게 조작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저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토로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진우 위원** 해당 표현을 찍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한테, 인사청문위원한테 조작했다고 할 정도면 글을 띄워 놓고 말씀을 해 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띄워 주시는 것을 허락한다면…… 잠깐만요.

○**위원장 이종배** 띄워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띄워 놓고 하겠습니다.

‘주진우 4일’로 되어 있는 부분의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을 각각 연도별로 한 부분은, ‘4일’에 된 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고 질문까지 포함해서 선량한 질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또는 문맥 전체로 놓고 본다면 ‘현금 봉투로 6억 받은 건데’, ‘현금 봉투 6억 쌓아 두면’에 이어서 바로 결혼식 날짜를,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연속해서 하고 바로 뒤에 다시 ‘6억이나 준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바이든-날리면’을 물었던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저것은 동시에 받은 6억을 동시에 있었던 12월, 11월 2일, 11월 29일 날 쓴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대단히 통상적이라고 보이고.

○**주진우 위원** 제가 총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총액이지 어떻게 저게 동시에 읽혀요? 문

해력……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더구나 저것에 그치지 않고 아마도 주진우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근거해서 공당인 국민의힘이, 공당인 국민의힘이 현수막으로 6억을 포함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순사질이야」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지금 답변 듣고……

○**전용기 위원** 들어 주시지요.

○**주진우 위원** 현수막은 제가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조작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니, 저것은 저 조작의 근거를 제공하신 것이어서 저는 저것에 대해서……

○**전용기 위원** 들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말씀 더 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답변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풍자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적인 풍자가 조금……

○**주진우 위원** 저 정도 정치풍자도 허용 안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좀 서글풀 것 같다. 왜냐하면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해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는 한국적 정서에 아주 탁월한 전통인 풍자로 비교할 수는 없다. 저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상적이라면 저런 오인을 불러왔다면 저는 저런 오인을 불러온 분들이 본인이 또는 당에 명확하게 저런 오인이 없도록 해명하고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종배** 자세히 양측에서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으니까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뜯어서 보면 주진우 위원 얘기가 맞고 또 모아서 보면 후보자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그런 국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니까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질의나 또는 후보자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면 본인들 발언 시간에 발언하시든지 아니면 정 어려우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 많은데요. 정책 이야기,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짧게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할 게 많은데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께서 ‘6억을 쌓아 두면 어떤 기분이야?’라고 페이스북에 먼저 쓰셨고 그 밑에 연도 다 지우고 ‘한두 달 사이에 다 썼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현금 6억을 쌓아 뒀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조작된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현금 6억을 장롱에 쌓아 놓은 사람이다라고 매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 과정 중에서 모두 해소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6억을 말씀하시고 있고 아직까지 그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매도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인이 써 놓으셨지 않습니까? ‘현금 6억을 쌓아 두면 어떤 기분이야?’ 이게 정치풍자고 해악이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방식으로 후보자를 비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트리고자 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 나눠서 일정을 적어 놨기 때문에 문제없다. 제가 방금 검색해 가지고 ‘장롱 속 6억’을 네이버에 검색하니까요 바로 뜹니다.

지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튜브에 ‘주진우의 이슈해설’,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

○채현일 위원 홍보를 너무 했구먼.

○한정애 위원 홍보를 너무 과도하게……

○전용기 위원 국민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인지.

○박선원 위원 책임질 거야?

○전용기 위원 누가 이 문제를, 검사들이 조작을 위해서 프레임을 먼저 씌워 놓고 작업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파고 파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인은 아니라고, 다달이 이렇게 했다라고 증명을 하는데……

○채현일 위원 명예훼손 아닌가요, 저것?

○한정애 위원 저게 명예훼손 아니에요?

○채현일 위원 명예훼손 아니에요, 저것?

○전용기 위원 맞습니다, 이것 명예훼손입니다.

○채현일 위원 고발감 아니에요, 저것?

○박선원 위원 고발합시다. 청문보고서에 고발……

○전용기 위원 이것은 외부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한정애 위원 밖에서 한 것……

○전용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명예훼손에 있고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본인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유튜브뿐만 아니고 다른 유튜버들도 이미 총리가 6억을 쌓아 놓고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기정사실화돼서 사실관계가 전혀 왜곡돼서 나갔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이야

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국민의힘, 공당의 이름을 건 현수막에도 ‘6억’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가지고 와야 되나요? 제가 차후 질의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직도 6억을, 현금을 쟁여 놓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후보자를 그냥 비난하기 위한 방도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야기하는 것 들어 보니까 아들 유학비 빨리 증명해라, 제삼자가 줬을 수 있다라고 의혹 제기하면서 이것을 아들한테 물어봐서 증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제삼자가 후보자 아들한테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2008년 오피스텔 전입신고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수상한 자금이다, 수상한 거래だ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한국에 없던 시절이고 유학 시절에 우편물 수령하기 위한 곳이다라고 해명하신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이런 법률적, 대법원 판결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마……

○전용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추징금 2억 받으셨고요, 2009년도에 추징금 7억 받으셨습니다. 말씀하신 2008년도에 정계에 복귀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18년 만에 정치에 돌아왔는데 ‘김민석은 끝났다. 김민석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워낙 오래 들어서 사실은 제가 2020년에 정치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별로 생각을 안 했던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위원 후보자도 그렇고 가족도 끝났고 이제는 정치에서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평가했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평가했고 평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후 행보, 정치적 행보 때문에 이 사람한테 투자를 했고 불편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영화를 보셔도 너무 나쁜 영화만 많이 보신 것 아닌가 싶은 겁니다.

상황적, 현실적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후보자가 이후에 어떠한 어려움을 살았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후보자를 매도하기 위해서 모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기 위한 내용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자금 흐름에 대한 것은 어저께 분명히 다 나왔습니다. 몇 년도에 가족상을 당하면서도 문제가 됐던, 위로금 받았던 그 돈도 본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추징금을 다 납부했습니다.

전두환이 29만 원 있다고 그 추징금 납부 안 하고 도망갈 때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 가지고는 추징금을 다 납부하고 본인의 책임을 다한 사람한테 그 돈 어디서 났느냐, 네가 갚을 능력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리고 그 돈을, 몇 년간 모아 놨던 돈을 한번에 모아 갖고 장롱에 쟁여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으시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인물들에게 차용증까지 쓰시면서 갚으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빚을 내서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후보자한테 말도 못 하고 친정에서 생활비 쓴다고 조금씩 받았던 그 돈도 중여세까지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 전부 다 모아 놓고 ‘너 평생 이 돈 모아놨는데 그 자금 이상한데?’ 그런 식으로 후보자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후보자에 대한 비난 형태로 가는 것은 좀 막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습니다. 빨리 내각이 구성이 되고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증거도 없고 짐짓어는 조작적인 의혹 제기라는 것이 방금 또 확인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번에 걸쳐서 있었던, 4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을 마치 한꺼번에 있었던 것처럼, 6억을 한꺼번에 번 것처럼, 그리고 한 사람 평균, 출판기념회에 참여했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축의금 액수를 평균 내 보면 5만 원쯤 되는 것 같다고 표현했던 것을 마치 책 한권을 5만 원씩에 팔아먹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가면서 모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제 이미 그 문제가 드러나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을 고장 난 녹음기처럼 반복을 하고 자료를 띄우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이런 인신 모독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할 거리가 없으면, 본인들이 관리하는 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담감 때문에 계속 그것을 또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 점을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청문회 관련해서 개인의 도덕성, 인신의 문제 관련해서 입증된 것이라고는 후보자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라는 것 외에는 입증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던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추징금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사건의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대선자금 수사를 하고 박연차 사건을 수사했던 그 수사 담당자 중간 간부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던 바에 의하면, 꼭 김민석 후보자에 관한 사건만을 특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했던 얘기가 ‘기업들한테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었겠느냐. 경영권 문제, 배임·횡령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협박을 해서 그 자백을 받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수마저도 그렇게 협박을 해서 받아 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 그룹의 어느 회장은 머리가 나빠서 말귀를 못 알아먹길래 그것을 이해시키는 데 한참 걸리느라고 애를 먹었다’ 이렇게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것

을 보면서 특수부 수사가 저렇게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바가 있었는데 그런 자세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돈 액수도 이렇게 가학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 냈는데 돈을 주게 된 경위라든가 영수증 처리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작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왜 표적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고 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사실 입증된 것이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제 나왔고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것들 위주로 또 정책 위주로 질문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무총리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에서 작년에 조사했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심각해지고 있는 갈등의 유형은 남녀 갈등인 것 같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세대 갈등이 연령대별 갈등으로까지 깊어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국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갈등이 구조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 현상, 이게 정말 총리가 되시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국무조정실에서 연구용역했던 결과에 의하면 지난 33년간 사회갈등으로 발생했던 총비용이 2628조 원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가 되신다면 대한민국의 이런 갈등, 진영 간의 갈등이라든가 남녀 간의 갈등, 세대별 갈등, 여기 생기는 이 문제점들을 총리께서 직접 주도해서 해결하는 구조, 시스템, 정성 이런 것들을 들여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님을 오늘 대통령까지 이르게 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였던 적극적인 참여와 기坦없는 토론의 유도에 의한 문제 해결에 기초가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에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리고 만약에 제가 총리가 된다면 감히 말씀드릴 때 공유를 일부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달려들어서 조율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인 사회적 갈등 관리, 사회 통합 또는 문제의 국민 참여와 공론화에 의한 조율 이런 부분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통상 이런 사안들을 그냥 공론에 맡기자 또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라고 할 때의 맹점은 중재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못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는 제가 좀 훈련되어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특히 지금과 같이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갈등 또 각종 지역갈등, 더구나 정치적 갈등이 있으면서도 전통적으로 그것을 풀어야 할 정치세력 가운데 중도보수를 점했던 부

분이 사실상 상당 정도 공백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 돼서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또 저도 저의 소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와 평소에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이 달랐던 부분까지도 적극 대화를 하면서 풀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박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곽규택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좀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후보자께서 어제부터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뭐가 설명됐다, 해명됐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자님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해명된 게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스스로 6억 원의 현금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억 원 정도 장모님한테 생활비 보조받았다’ 그것도 어저께 처음 말씀하신 거고요. ‘출판기념회 두 번 해 가지고 현금 2억 5000 정도 받았다’ 그것도 어제 금액을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빙부상 1억 6000, 그래서 6억을 맞추신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라는 특성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료가 없어요.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 외에 어느 때 얼마 받았다, 이거 지금 자료제출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특이하게도 후보자 스스로 청문 자료에 붙여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2018년 4월 달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이렇게 죽 붙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총 11명한테서 1억 4000을 빌린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9명에 대한 것은 같은 날 1000만 원씩 빌린 걸로 돼 있고 차용증의 양식도 똑같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차용증, 같은 날 9명 중에서 보면 강북구, 노원구, 구로구, 성동구 이런 데 거주하시고 주소지가 불명인 분도 네 분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전북 정읍에 거주하고 계세요.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 했나 하면 ‘치솟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1000만 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고 최근에야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사적 채무를 청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원래 채무 관계라고 하는 게 빌릴 사람이 결심한다고 해 가지고 탁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같은 날 빌려줄 사람들이 빌려주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날 같이 모여서 차용증 받고 1000만 원씩 주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이 9명의, 같은 날 1000만 원씩 빌려줬다고 한 9명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개인적으로 다 친분이 있으신 분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대부분 친분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대부분.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있나요? 이날 처음 차용증 받으신 분도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중의 한 분이 아마 그중의 한 분의 부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관계를 보면요 이 핵심에 강신성 씨가 있는 것 같아요.

강신성 씨는 이 9명이 같은 날 차용증 쓴 날 말고 조금 뒤인 같은 해 4월 11일, 4월 23일 이렇게 2000만 원씩 빌려준단 말이에요, 후보자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관계를 보니까 강신성 씨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한 분이 계시고—전북 정읍입니다—그리고 강신성 씨 회사에 거액을 대출해 줬던 분도 계시고 아래요, 정모 씨 이런 분은. 그러니까 아마도 친분 관계가 있다면 강신성 씨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이거나 강신성 씨와 함께 친분이 있는 분이거나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때 후보자께서 뭐라고 SNS에 올렸냐 하면 ‘그때 이자를 후하게 쳐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용증상에는 연 2.5%의 이자예요. 차용증을 믿는다 하더라도 후한 이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환기간, 5년 동안 차용을 했는데 5년 동안 전혀 이자라든지 원금 상환 내역은 없고요. 그 상환기간 2년을 지나 가지고 7년 만에 이번에 총리 인준 지명받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상환하셨다는 겁니다.

차용증의 이런 성격이라든지 모양상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9명이 모여 가지고 한꺼번에 차용증을 받았나 아니면 같은 날 후보자가 막 돌면서 그렇게 받았나,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지명된 다음에 대출을 받아 가지고 나는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2025년, 금년도 자료겠지요—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대출을 받았고 후보자가 대출받은 1억 5000 중에서 1억 4000만 원을 정말 차용증상에 나오는 이분들한테 돌려준 것이 맞는지, 그러면 계좌 내역을 제출해 달라 한 상태고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신성 씨라는 분이 후보자하고 아주 옛날부터 친분이 아주 깊으신 분 같아요. 미국 유학생활 하실 때 월 450만 원씩 줬다, 그런데 배추 투자하라 해 가지고 2억 원 정도를 떼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금 상환 성격으로 450만 원씩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옛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신성 씨가 그 이후에도 사업을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배추농사 잘못 지어 가지고 돈 떼일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이 2011년도에 전북 정읍에 폐기물처리업체 부지를 샀다는 겁니다. 확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마자 전북 정읍시장인 김 모 시장께서 시행사로 지정을 해 줘요. 도시계획시설 시행사로 지정을 하면서 그 땅 값이 엄청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가 배추농사 투자했다가 못 받은 돈 2억 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 같아요.

그리고 2011년 그 무렵에 후보자께서 최고위원이셨어요. 그래서 전북 정읍시장 김 모 씨의 유세 지원도 한 번 갔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되거나 무관한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런 분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핵심적인 증인에 대해서 오늘 불러 가지고 분명히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증인 채택이 안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의 말, 말씀으로 하시는 증언 외에는 우리가 어떤 확인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대출 정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융 자료, 본인 명의예요. 본인 명의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론은 강신성 씨가 하는 사업 중 저와는 무관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나 묘사를 해 주셔서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없다고 생각되고,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 규정, 과거에 있던 부분에 따라서 제가 제출해 왔고 앞으로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적 채무를 빌릴 만한, 증가산 중여세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빚을 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여러 사람에게 부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사적 채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증가산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좀 궁금하던데 증가산세라는 게 추징금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해서 증가산세를 적용하는, 세금 안 냈을 때 증가산세를 적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중해서 부과된다 그런 뜻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종배** 그러니까 추징금을 원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산세같이 붙어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7억 2000이지만 실제로는 더,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총?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렇게 됐습니다. 통상 과거에는 예를 들어 추징을 해야 되는 정치자금 원금이 있다면 그것에 추징금을 부과하고 추징금만 내면 끝나는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처럼 추징금을 안 내는 분들 때문에 추징금은 추징금으로 하고 거기에 중여세 까지 하는 이중과세를 하는 형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징금은 추징된 원금을 상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납부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7억 2000의 경우에 처음에 1억 2000이 증여세로 부과되었었는데 실제로 제가 마지막에 낸 것은 결과적으로 2억 1000을 냈습니다.

왜 그랬냐면 1억 2000이 3개월인가 1개월이 지나면 매달 2%, 3%씩 느니까 제가 대학 강의나 등을 해서 예를 들어 500만 원을 갚아서 가령 3000만 원이 2500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그다음에 고개를 돌리면 그게 2800만 원이 돼 있고 3100만 원이 돼 있어서…… 그래서 2000, 지금 아마 제가 빌리기 전해의 7월인가에는 1억 7800인가로 올라가서 원 1억 2000에서 너무나 올라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지 않고서는 제가 그 뒤에 추징을 갚는 것도 일상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어쩔 수 없이 1억 4000의 사적 채무를 일으킨 것이고, 그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 저의 신용으로는 은행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씩, 저는 정치자금으로 다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씩 그나마 제일 가까운, 아까 말씀처럼 제게 어떠한 정치적인 또는 제가 사업적인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분들에게 차용증을 빌린 것이고 당연히 5년을 하고 못 갚을 수도 있다, 바로 5년 후에는. 왜냐하면 제가 추징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갚고 나서 갚는다라고 하고 이자는 성실 납부를 해 왔고 최종적으로 결국은 추징을 다 갚은 후에 갚을 예정이었고 그렇게 갚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러니까 마지막에 1억 2000만 내면 되는데 1억 7000까지……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2억 1000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원장 이종배 2억 1000. 9000만 원을 더 내신 거네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대법원……

○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미리 돈을 빌려서 먼저 갚아도 되는 걸 9000만 원을 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위원장님, 감사한 말씀인데……

○위원장 이종배 나라에 보태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감사한 말씀인데 제가 그때 1억 2000을 신용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아니, 개인한테 빌리듯이 그때부터 이렇게 가산되는 걸 생각하면……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부족해서, 저도 그렇게 무서운 세금일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미리 그렇게 했었더라면 9000만 원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해서 당시 세무서에, 이걸 어차피 어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생각이 있으시니 이것을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담보를 잡고 좀 분납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당시 부산 수영세무서에 이야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건 갚아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이중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돌려주는 일종의 사후적 경제제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런……

○위원장 이종배 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추징을 완납한 후에는 이 부분은 일종의 이중으로 내는 것인 돼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가 몇 해 전에 확인하고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는데, 여러 번 몇 해에 걸쳐 고민하다가 현재까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종배 아니, 빚을 갚느라고 고생했고 그렇게 또 대출까지 받아서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자기가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어느 분이 명예훼손 하고 왜곡할 것 다 왜곡하고 ‘풍자다’ 그러는데 풍자라는 말 안에는 조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 자체에 명예훼손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악설중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내뱉는 것으로 남을 속이고 상처 줘서 세상사에 악취를 풍기는 죄인데요. 악설중죄 다음에 따라오는 네 자가 또 있습니다, 화탕지옥. 그 정도의 중죄를 졌다라고 불교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후보님의 삶의 역정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여러 가지 채무 그걸 다 성실하게 갚고 그 속에서의 고통을 다시 이렇게 보면 참 친구로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정말 너무 제가 무지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참 죄송합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 경제의 공황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오늘 또 3112포인트, 코스피가 또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도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지역이라고 하는 평가가 해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장세가 실적 장세로 전환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금융 장세에서 자기자본을 기업이 직접 조달하고 그래서 대출 이자의 압력을 줄이고 투자를 늘려서 매출도 늘리고 그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급속하게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되고 또 윤석열 정권 말기에 약간의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물가상승, 유동성의 지속적인 증가 또 부동산 시장의 동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즉 정권 교체를 통해서—평화배당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이 안보상 위협 때문에 늘 저평가되던 것이 극적으로 오히려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 그것은 이제 평화배당금, 피스 디비던드(peace dividend)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그렇게 급속하게 느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서서히 조율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데는 또 압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각별하게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물가 잡기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안정화, 이것을 위한 새로운 지원금—민생지원금—을 주되 이것이 유동성의 확장이 아니라 실물경제를 오히려 튼튼하게 하는 그런 전환의 계기로 삼으면서 우리 경제가 재활성화되고 선진국으로 도약되고 국민의 1인당 소득도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정말 고난도의 정책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리님이 되시면 경제부총리와 긴밀한 협력 그리고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실, 정책실장과의 긴밀한 협력, 무엇보다도 대통령님께서 경제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당장 취임을 하시면 최우선 순위, 경제의 최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실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택시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서도 거기를 가서 ‘요새 정말 코스피 무섭게 오르더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차시현상을 저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제2의 IMF라고 불릴 만큼 구조적으로는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정책이라는 게, 특히 경제정책이 너무 복합적인 다면체여서 이쪽을 기대하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나오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나오는 그런 성격이어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좋은 선량한 측면이 있는 정책적 효과들이 경우에 따라서 지금 우려하신, 어제 이종배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몇 분이 지적하신 혹시라도 물가의 자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포함한 여러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해야 하고.

특히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를 잘못 다루면서 생겨난 부동산에 대한 긴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있습

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비교적 IMF 비대위 이후에 쭉 경험을 해 보면서 또 재경위, 정무위 등을 거치면서 정책이 정말 생선 굽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정책이 저는 정책 하는 사람의 성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감각이 있는 사람이 쓰는 정책이 균형감각이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 정책 결정자의 균형감각과 실용성, 언행의 신중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보고요.

이런 전제 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째,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것을 확신하지만 구조적인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온 국민이 그것을 공유하고 인지하고 그 구조적 위기 상황을 인지하면서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위원 전임 총리님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저에게 특별히 인상 깊었던 분은 정세균 총리님이십니다. 코로나19 때 신천지에 의해서 대구 전역에 급속하게 코로나가 확산돼서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2주일을 현장에서 머무르면서 직접 책임지면서 진두지휘하셨거든요.

총리가 되시면 어떻게, 현장성을 어떻게 보강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전임 총리들께서 하셨던 그런 노력의 두 배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총리 지명을 받고 생각을 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총리를 조금 의미 없이 평가하는 것처럼 쓰여졌던 의미의 의전 총리, 행사 총리, 대독 총리, 현장 총리, 민생 시찰 총리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못 가는 현장, 그런 행사 이런 곳에 가서 국민들과 함께 하고 또는 행사에 성실을 다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나 재난 현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는 담당자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범위 한에서 최대한도로 밀착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대통령님하고는 위낙 돈독하시니까 국민과 현장에 또 가까워지는 그런 총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서울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어제 저희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후보자께서 보건복지위원회으로 계실 때 출판기념회 연 것 관련해서, 제가 사실 상임위하거나 이런 인정 할 때 특정 위원을 지정하거나 해서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께서 이것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아예 명명하셔서. ‘보건복지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하고 의료 관련 협회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봉투를 받았다, 김영란법 위반이 의심’, ‘의심된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유관 기관장들이 책값을 5만 원만 냈을 리 없지 않은가’라는 표현도 썼고요. ‘수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총 1억 원 또는 1.5억 원을 봉투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예를 드신 게 단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 업소 대표로부터 축의금 봉투 100만 원 받는 것,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는 문구가 또

들어갑니다. ‘받는 것이 방송됐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하면, 주 위원님 안 해 보셔서 그런데 대개 보면 상임위 관련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상임위 관련된 분들이 다 이해관계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대개 그 이해를 조정하는 사람에 해당되지요. 만약에 특정 유관단체가 ‘이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갖고 와서 하면 그게 입법로비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이미 몇 차례 걸쳐서 해당되는 의원님들 몇 분 수사받으시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0만 원’이라는 단어를 쓰시고요. 이렇게 김영란법 해서 올리면, 누군가 있지요, 그 프로 고발러 한 분.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하고 성함이 똑같으신 이종배 서울시의원, 그분 또 이제 고발하시겠지요,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게 나올 때까지 그냥 하시는 거지요, 나올 때까지.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올리고 그것이 유튜브로 그냥 가짜뉴스로 다시 재생산되게 하고 그걸 받아서 뉴스가 또 뉴스로써 만들어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들과 가짜뉴스들이 만들어지는 게. 최소한 의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정부 부처, 부처 관련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기후에너지부 설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요. 그런데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에너지 전환이 급하다 그리고 어떻게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자라고 해서 에너지 파트가 어디로 가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감축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적응이 훨씬 더 많이 광범위하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탄소는 많이 배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재난과 관련한 부분은 결국 적응 파트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질 때는 감축과 더불어서 적응을 총괄 조정하는 부처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이 기후에너지부의 감축과 적응을 한꺼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아마 에너지를 갖다 붙이는 방식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기후에너지부로 앞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부의 장관으로 김성환 의원님이 지명되셨지 않습니까? 김성환 의원님이 굉장히 정책적 역량이 있는 분이고, 특별히 제가 우연한 기회에, 본인이 지명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가슴이 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서 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잘 준비되어진 그런 장관후보자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한정애 위원님이 또 직접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총리가 되어 정식으로 활동하게 되면 꼭 별도로 말씀을 여쭈면서 하나하나 반영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총리가 위원장이 되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조율의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상·권한 강화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심의 의결 기능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형식적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위원회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권한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재정관리 파트하고 이행 점검 파트를 통해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부분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재정관리 파트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각 부처의 기후 관련 예산과 연계해서 배분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실지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행점검을 통해서 각 부처가 그러면 기후정책 이행 사항을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권고 사항을 국회로 보고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오히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권한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위상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비서관, 청와대에 있었던 비서관이 아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사무처장을 맡는 방식이지요. 겸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직보가 가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조금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여쭙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총리실 산하에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도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아주 신속하게 리뷰, 그러니까 재점검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빨리 집중적으로 단기에 모아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 안 된다는 걸 정리해 내고 차라리 활동 중단시켜야 될 부분들은 중단시키고 새로 갈 것들은 새로 가는 이런 등을 종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녹색성장·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저런 위원회들의 권한을 강화하지 하는 고민을 마침 해 오고 있던 차에 굉장히 비슷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 보건복지위원장 시절에 제가했던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은 법을 고치고 당인은 당의 내용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출판기념회와 관련돼서 관련된 단체가 혹시 이익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은 이미 출판기념회가 법적으로 존치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걸려질 것이 걸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출판기념회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지 않는 한 그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법적 제도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법으로 없애면 되는 것이고, 어떤 당에 소속한 분이 계신다면 그 당의 당대표들을 포함해서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고 당론으로

정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검사에게 수사를 권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통상 프로 고발러가 문제 제기하고 또 그 전후 과정에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있다가 그것을 특정한 의사를 가진 정치검찰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에 의해서 작동되는 일종의 편파 수사 카르텔로 작동됐던 경험들이 있어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그러한 또는 현재도 그러한 편파 수사 카르텔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사실상 보이고, 동일한 사건을 한쪽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한쪽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등등이 있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수사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로 엄하게 새 정부에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출판기념회가 미치는 그런 부작용도 상당히 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 여야가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런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행정수도 관련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행정수도라 함은 대통령 집무실, 국회 본원 이것이 위치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황운하 위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될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 무엇이 사회적 합의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사실상 과거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국민 간에 또는 지역 간에 약간 논쟁도 있었고 그 결과 관습헌법에 의해서 수도 이전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한 번 난 적이 있어서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또는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국회의사당의 의장실 및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실행하려면 최소한 헌법 개정에 준하거나 또는 그것을 안 해도 일정한 특별법으로 처리해도 좋다라는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그런 표현을 쓰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위원 지금 말씀이 헌법 개정 또는 특별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행정수도 특별법으로 입법사항으로 가능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그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합의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어제 황운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 개정의 절차법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하자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 행정수도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동해서 보되 만약에 그것이 병행적으로 처리돼야 되는 것이라면 그와 연관해서 아마 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운하 위원** 참고로 ‘관습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현재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한 20여 년 전쯤 됩니다.

어저께 문형배 전 현재소장 권한대행께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관습헌법에서 관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습이고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다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것’ 이걸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신 거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황운하 위원** 그렇다면 20년 전의 관습헌법과 지금의 관습헌법은 다른 것이다, 그 관습은 폐지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개인 의견이지요, 전 현재소장 권한대행이시고 방송에 나가서 개인 의견을 말씀하신 건데. 즉 지금 누군가가, 그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행정수도 특별법 이런 법에 대해서 현재에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던 것인데 이제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또 현재에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년 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관습헌법을 논했던 당시의 현재와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고 세상도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상의 변화를 한편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대통령 공약을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포괄적 위임, 맨데이트(mandate)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도 논지를 주신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는 것을 포괄 위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료하게 하려면 일정한 토론을 거쳐서 적정한 법적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운하 위원** 참고로 저는,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 법이 통과한 이후에, 물론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합의가 안 돼도 통과는 가능한 건데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정부가 이 특별법에 따라서 행정수도의 이전, 즉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전체를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시점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제 입장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 해, 두 해 전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을 조기 건립하고 그것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것으로 가고, 할 수 있다면 서울과 세종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가고 대통령 집무실도 최고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입장을 전개했던 바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운하 위원** 이해했습니다.

어저께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의 업무보고가 또 중단됐더라고요. 취소됐는지 중

단됐는지 어쨌든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검찰이 여전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고서에 담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취소 또는 연기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아직은 조직적인 저항으로 읽히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검사 중에 고검장급 검사가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고문을 내고 해서 반발이 조직적으로 읽히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겠지만 반발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발이 있는 것은, 어제 후보자님께서도 자신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데 그게 기꺼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두면서 수사·기소 분리의 계획을 내라 이러면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수사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정부가 조정해 주는 결정권한이 있는, 인력 결정권한 예산 결정권한이 있는—물론 예산은 편성권이지만—이 권한이 있는 정부가 이걸 먼저 조정을 해 주어야 그래야 검찰이, 또는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의지를 보여 줘야 검찰이 ‘아, 이건 이제 불가피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과 예산 조정은 정부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사의 방향은 나와 있는 것이고, 어떤 방향과 속도와 시점 등을 포함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대통령께서도 현명하게 이것을 풀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 부분은 아주 현명하게 잘 판단해야 될 것니까 국민들 뜻도 좀 묻고 이러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황운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행정수도 완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저께 저도 질문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해수부 이전을 지시를 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청도 쪽에서는 충청도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가 많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부득이 해수부를 옮겨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해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어저께도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어제 청문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각 언론에서 했는데 PPT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언론별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제목에 ‘결국 납득할 해명 없었던 김민석 총리후보자’, 세계일보는 ‘의혹 해소는커녕 논란만 키운 맥 빠진 김민석 청문회’, 한국일보 ‘재산 증식 의혹 해소 못 한 김민석 부실 해명, 국민이 수긍하겠나’, 이건 다 제목이고요.

다음 페이지.

중앙일보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부실하게 지나가면 앞으로도 정부·여당에 선 중인 채택을 방해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지 염려스럽다. 부실한 검증은 민심의 이반을 부를 뿐이다’.

밑에 국민일보는, ‘정부 부처나 후보자들 역시 충실히 자료제출과 성의 있는 답변 태도가 요구된다’.

그리고 밑에 세계일보는 ‘후보자 해명—작은 제목이지요—눈높이에 못 미쳐. 자질·능력 갖춘 적임이라는 여당의 논리 무색’.

그리고 서울신문에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의혹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상황이다’. 밑에 좀 잘렸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는 오늘 더 겸손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야 한다. 청문회를 지켜보고도 답답증이 더 커졌다는 사람들이 많다’.

후보자님, 이게 다 언론사들 사설입니다. 그러면 언론사의 대표하는 이 사설이 후보자님 말씀대로 평균적인, 일반적인 인식에 못 미치는 분들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네 군데의 언론사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배준영 위원** 네 군데가 아니라 여섯 군데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여섯 군데. 그러니까 여섯 군데는 다 중요한, 의미 있는 언론사들이고요. 그 여섯 군데를 포함해서 또 여섯 군데 외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언론 또 그 언론에서 지적되는 이런 포인트의 지적뿐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의 지적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중히 받아들여서 청문회 남아 있는 시간에 계속 또 임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말하자면 절대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장악했고 입법부도 다수 여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에 조희 대 대법원장이 있고 지난번에 판결에 대한 영향으로 대법원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 국정 조사를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님, 대법원에 대법관을 증원한다든지 3심 제도를 헌법소원까지 해서 사실상 4심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지난 대선 시기에, 저는 이미 존재했던 것이니까 당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이러저러한 중요한 사건을 판단하거나 검토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록이 충실하게 읽혀지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확인해보자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더 높여 가는 차원에서의 여러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지금 대법관의 수를 증원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대법원 스스로도 이해하고 고통을 토로하는 업무의 과정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 측면에서 제기되는 면도 있고 또 반대에서 보는 분들은 이것은 현재 대법관의 수를 늘림으로써 현재 존재하는 현존 대법관들의 권한을 조금 약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종합한다면 결국은 국민의 눈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필요한 대법원에 대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그것을 대원칙으로 받들면서 풀어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특정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입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질문을 더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제 후보자님의 말하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검찰이 잘못하고 판결이 잘못됐다 그리고 일부 맥락만 따서 검찰이 한 것을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취지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련된 재판이 모두 6개가 있었는데 6개를 전부 다 부정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삼권분립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우려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옥죄이고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현재 것만 아니라 과거 것도 무시하고 옳지 않다고 하면 과연 삼권분립이 제대로 서겠는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일부만 따서 말씀드렸다고 해 갖고 법원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판결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분명히 사건 당시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이런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도 제가 또 말씀드리기 좀 면구스럽기는 한데 ‘혹시 만약에 시벳거리가 있으면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삼권분립도 정상적으로 하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필요한 브레이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법원을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법원을 존중합니다. 법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법원이 내린 결정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법적으로 정한 항소의 절차도 밟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최종 결정에 대해서 성실히 정해진 대로, 저는 예를 들어 과거에 사면·복권도 받지 않았거든요. 제 의사로 안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드물게 다 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추징 등 의무를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적 사정의 성격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위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부분에 위법을 제기하시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후진술에서 드렸고, 다만 그때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일일이 다 수천 장의 영수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될지 솔직히는 잘 모르겠다, 그것을 제가 지킬 수 있을지. 사실 다른 누구는 지킬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영수증 미발급과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국힘에 소속된 당대표를 지내셨던 분 한 분하고 그냥 의원 한 분, 두 분은 무죄가 났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께서 선의를 가지고 법원에 대한 존중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빌린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의 검찰 있었지 그런 메일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법원을 존중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재심의를 통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제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늘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 20년 만에, 그 사건을 한 당시 검찰 핵심들의 배후에 일정한 카르텔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기사가 나서 저도 인지하게 된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20년을 지냈을 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었겠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이것은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경험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그냥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더욱더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법원의 양형 규정 이런 것을 혹시 보시면, 제 두 번째 사건이 7억 2000인데요. 박근택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정도 정치자금 사건이면 벌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당시에 100% 유죄 아니면 100% 무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징역형인데요. 당시에 너무 놀랐습니다. 벌금이 되는 것을 보고 법원이 좀 곤란했구나, 사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벌금을 줄 수 있는 액수가 아니거든요. 1억만 지나면 보통 징역형 아닙니까? 그런데 제 경우에 7억 정도의 액수고 구속까지 일시 했던 건이어서 사실은 벌금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그만큼 법원도 고민스러웠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저의 불찰과 부족함이 있던 부분을 제가 또 이에 대해서는 짚고 있고, 사실은 제가 이후에 미국 가서 로스쿨을 하고 미국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앞으로 정치를 할 가능성이 비록 높지 않지만 다 떠나서 제가 짊은 시절에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세비 받는 것 외에 돈을 벌어서 수익 활동을 한 적이 별로 없어서—이후에 대학 강의는 했지만—앞으로는 돈을 버는 방법으로라도 내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제가 당에서는 국민소통위원회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파출소를 운영했고 가짜뉴스 대응을 지난 대선 정국에서 했습니다. 술한 유튜브와 커뮤니티와 그다음에 네이버 댓글, 언론사 댓글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하고 또는 이재명 대표를 테러를 가하려고 하는 술한 댓글에 대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들도 언중위와 방심위, 선방심위 그다음에 유튜브, 구글, 네이버 측에 심의와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야당 위원도 아마 그 대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진우 위원님께서 여러 제기를 하셨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60여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중에 6억 원의 현금을 쟁여 놓고 그때그때 사용했다라는 취지의 아주 단정적으로 쓴 글이 7건이고요.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또 단정적으로, 그 글까지 포함하면 총 10건입니다. 그러니까 60건 중에 20%에 해당하는 글이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노출이 됐고.

계속 넘어가 보지요, 그다음 것.

저기에 보시면 ‘6억 원을 받아서 재산등록 없이 쓰신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랍니다’, ‘구태 스恸서 정치에 물들어서 현금 6억 원을 국민 몰래 쓰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마인드라면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퇴 종용합니다.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봉투를 모아 집에 쌓아 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다’.

다음 페이지 넘기십시오.

‘출판기념회로 현금 6억 원을 땡겨 몰래 쓴 김민석’ 이렇게 했고요.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팔아 현금 6억 원을 챙겼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도 한때는 특수부 검사를 하셨고 공당의 국회의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인사청문위원으로 번외, 장외 인사청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해서 후보자가 소명을 했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정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정이 없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앞서 배준영 간사께서 종이신문 일부를 또 인용하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종이신문이 대략 한 100여 군데 언론사가 있습니다. 전체 신문 96개 중에 입맛에 맞거나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영한 언론사의 사설을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도 상당부분 허위 사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위원장님께도 시시비비를 가려 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옆에 계신 광규택 위원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또 끼어들어서 아까 잠깐 소란이 있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나다 순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의 경우는 조중동 순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나다 순으로 얘기하면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 이렇게 보통 인용합니다.

아까 사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경향과 한겨레는 인용하지 않으신 것 같고 서울과 국민의 인용을 부분 발췌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안 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설 중에 민주당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일보 사설, 야당이 중인명단을 자꾸 바꿔 결렬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주장은 세 줄, 민주당 주장은 한 줄로 썼습니다. 편파보도입니다. 그리고 2000여 건을 제출했고 그래서 1000여 건 가량 했으니까 50% 자료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보도가 아닙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선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중앙, 조중동 했고.

잠깐만 멈춰 주실래요? 제가 자료가 지금 혼재돼 있어 가지고 조금만 찾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띄우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바꿔었으니까요.

그다음에 경향신문은 ‘의혹 규명 못 한 김민석 청문회, 야당 사퇴 요구 멈춰야’ 이게 사설 제목인데 이 부분은 뺏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에서.

그다음에 국민일보는 ‘국정 능력 검증보다 개인사 공방 치우친 총리 청문회’라고 얘기하면서 꽉규택 위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내용이 함께 실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일보는 ‘중인 0명 김민석 청문회…… 의혹 그대로에 네 탓 공방까지’, 여기서 어저께 검증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그동안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실렸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신문도 ‘의혹·역량 검증 아닌 편싸움…… 왜 하나 싶은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는 ‘의혹 해소는커녕 논란만 키운 맥 빠진 김민석 청문회’, 시쳇말로 깡통 청문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9개 사설 중에 거의 비등비등 반반이 여론이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지만 그닥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다는 점을 하고요. 여기에 편파보도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대응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결국은 이 과정이 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이 대신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좀 널리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적어도 청문회 과정에서 진행되고 일정하게는, 최소한 소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것은 누가 보아도 한 점 차이 없이 정리된 부분이라면 혹시 그것이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든 아니면 착각에 의해서든 대외적으로 표명된 것들은 그것이 페이스북이든 유튜브이든 정리하는 것 정도는 어찌 보면 굳이 법을 논하기 이전에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제기되는 청문회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아, 이러한 성실한 소명이 청문회에서의 국민의 이해와 검증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더 성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선후보께서 주 4.5일제 공약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위원장 이종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4.5일제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방향을, 우리가 근로하는 날수를 줄여 가는 것은 전체적인 세계적 추세라든가 또 인간의 본성에 맞춰서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로서 그것을 현실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어디부터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상황은 우리가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등등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토론의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공약을 제기할 때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특정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수순으로서 제기하신 것은 아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향으로서의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이라고 보고 아마 실행을 하게 될 때에는 실행 계획의 문제는 추가로 논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고용노동부에서는 국정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 기준 연간 1859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1717시간보다 낮추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고용노동부에……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인 방향의 공감을……

○**위원장 이종배** 목표를 2030년까지, 이런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토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포괄적인 방향을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자리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하기 이전에 고용노동부 자체의 보고안이라면 고용노동부가 1차 대통령의 공약을 바라보고 자기 나름대로 설계한 하나의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종배** 나랏일이니까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에 대해서 경총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라든지 유연근무제 도입 등 노사 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이잖아요. 지금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우리 노동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좀 낮은 편이라고 경총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요.

○**위원장 이종배** 얼마나 낮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평균 이하라고 주장은 하고 있고, 아주 낮은 편이라고 경총 쪽에서 주장을 하고……

○**위원장 이종배** 평균 이하 정도가 아니고 하위.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하위라고 주장하지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종배**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노동계 쪽에서의 주장은 또 조금 다른 면도 있어서 그거를 어느 한쪽으로 제가 수치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런 노동생산성, 낮은 노동생산성에다가 또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을 이렇게 단축하면 생산성 감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경영계 걱정입니다.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노동계에서는 지금 정년 연장 요구를 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재고용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좀 대립되는 상황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정년 연장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어떤 입장의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적에는 연령별대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의 예가 직접 닥치는 그 연령대의 부분과 청년세대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느냐라는 통상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쭉 해 보면서는 청년세대에 있어서 의외로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 조금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여론이 변하고 있다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를 보니까 워낙 경제가 어려워서 부모 세대가 조금 더 일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혹시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분석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런 종합적인 정년 연장 논의, 우리 사회에서의 수용성 등을 다양하게 봐야 할 문제여서 이 문제는 총리가 되면 산하에 국책연구원 경인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번 의뢰해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어쨌든 재고용도 일하시는 거니까, 다만 경영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수와 재고용에 대한 보수는 전혀 다른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장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바라는 거하고 직접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가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전체 지금 얼마예요, 수출액?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지금 수출액…… 글쎄요, 반도체가 마켓셰어가 한 10% 정도 되지 않나요, IT 부분이?

○위원장 이종배 얼마요? 반도체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반도체만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반도체만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반도체만으로 23% 이 정도 될 겁니다, 반도체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어쨌든 가장 압도적인 부분……

○위원장 이종배 우리나라 한 1400조가 지난해에 넘어섰는데 전체 한 6200억 불 중에서 1400억 불 이상이 반도체니까 이십몇% 되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 수출에서의 저기를 말씀하신 거고……

○위원장 이종배 예, 우리나라 수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조금 전에 글로벌 마켓셰어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이종배 마켓셰어 말고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위원장 이종배 그런데 요즘 우리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추격도 많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도체 특별법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안 된 이유가 유연한 근로환경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나라는 그런 제약 없이 밤새워서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하니까 좀 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반도체 없으면 우리는 수출 무너지고 수출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노동계에서도 생각을 하고 또 총리 되시면 노동계 잘 설득해서 이런 부분은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같은 이런 산업은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더구나 이후에 우리는 반도체가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등등 또 대만의 경우를 볼 때 안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로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나고 또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등등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한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직접—아마 이 자리였을 겁니다—토론을 주재하시는 등 여러 경험이 있고 이와 관련한 노동계, 산업계, 경영계의 의견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직접 경영계의 핵심 최고 경영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도 대화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반도체의 근로환경 유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

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대통령께서는 반도체의 개발이라든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며칠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것이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제약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연동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같이 제기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후보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문제를 제기하셨었고 그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반도체 특별법상의 다른 법 규정의 개정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일단 노사 양측에서 조정이 된 상태 내지는 양해가 된 상태로 알고 있고 저는 그때 대통령께서 제기하신 원칙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 문제만 해결되면 반도체 특별법 빨리 제정해서 우리가 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되시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 아마 정책 측에서는 그 쟁점을 빼놓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선 해결하고 가도 된다라는 정도의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런데 그게 선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적극 좀 지원해 주시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위원장 이종배**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AI의 중요성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에 GPU 1만 개 구입하는 예산도 세웠는데 이렇게 AI 고도화도 필요하고…… 우리가 좀 뒤쳐졌어요, AI 기술 고도화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AI를 빨리 모든 산업,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모든 산업에 적용하는 것 이 부분에 우리가 소홀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데 동의하시는지 그 점만 묻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안보에 이어서 경제에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AI까지 이렇게 폭넓게 관심 갖고 질문 주셔서 제가 앞으로 더 깊이 말씀을 여쭙고 지혜를 여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많이 노출됐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이해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후보님, 식사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주진우 위원** 인사청문회 검증을 위해서 정책질의랑 신상질의가 대략 어느 정도 배분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글쎄요, 생각을 잘 안 해 봤는데……

○**주진우 위원** 한 50 대 50 정도면 될까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글쎄요, 그것은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청문위원이 열세 분 계신데 사실은 여당 위원님들이 더 많고 저희는 위원장님을 빼고 야당 위원은 4명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여당 위원님들이 신상질의를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보도 나거나 또 공개된 자료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상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야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 거지요.

저도 정책질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전체를 보면 저희 4명이 아무리 신상질의 해도 한 30~4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또 후보자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로 인해서 6억 원을 한 번에 받은 것처럼 오인받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쟁점은 몇 달에 6억을 받았느냐, 아니면 이번처럼 3년에 걸쳐서 받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6억을 한 번에 다 받은 다음에 쌓아 두고 썼느냐, 아니면 여러 번의 이벤트에 그때그때 집에 두고 썼던 금액이 총 6억 원이냐 이런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국민 눈높이와 관심사는 국회의원 세비가 꽤 많은데 출판기념회 할 때마다 1억~2억씩 현금으로 받는 게 적당하나 또 그 현금이 계좌나 투자 자산에 들어가거나 재산등록에 나타나지 않고 쓰이면 국민들은 알 수 없는데 그게 관리감독이 되는 거냐, 그 현금은 세금 안 내냐, 출판기념회 참여하는 이해단체와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유착될 가능성은 없느냐, 김영란법은 하위 공무원만 지키고 고위직은 안 지켜도 되느냐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6억 외에 더 받은 게 없느냐, 돈이 지금도 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현금거래기 때문에 그 현금거래의 특성 때문에 저는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작할 이유도 없고 제 글을 잘못 읽은 사람도 없어요, 이미 보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 수준은 제 글을 깨우쳐 주실 정도 수준이지 오독하실 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출판기념회도 제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실태가 드러났고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관행일지 몰라도 국민이 불편해하시면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으로 양성화하자는 건데, 제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솔직히 내용을 이슈화하기 위해 가지고 검은봉투법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 그런 이름이 불편하시면 제가 중립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경실련도 동의하는 내용인데, 정치자금법 개정해서 출판기념회를 투명하게 하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한 번만 마지막 질문……

○**주진우 위원** 제가 발의했던 정치자금법 개정안,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고 거기에 따른 책의 권수를, 정가로만 팔게 하고 또 한 사람이 너무 몰아서 사면 사실상 혜택이 될 수 있으니까 10권 정도로 제한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신고는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정도 내용이면 동의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법안 제출하신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설명만 갖고 이해한 대로 한다면 출판기념회는 하되 액수를 정가로 팔게 하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주진우 위원**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리고 그 액수에 관해서 신고하게 하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출판기념회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공감이 있고요. 하는데 가급적 양성화하면 좋겠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쟁점일 것 같은데 하나는 액수를 정가로 해야 하는가, 또 하나는 그러면 그것을 공개하느냐가 있는데 공개하는 것은……

○**주진우 위원** 신고지요, 공개가 아니라.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공개 내지는 신고지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수익을 신고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신고한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니까 아마 조의금, 축의금을 온 국민에 대해서 신고하게 하는 것은……

○**주진우 위원** 정치인이니까 조금 더 제한을 받자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니신 것 같아서, 그것도 일반 문인이 아니라 정치인에 한해서라고 전제하신다면 저는 신고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정치 신인들에게 후원회도 허용되지 않는 지금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가령 만약에 저보고 법을 내라면 정가의 3배 한도를 둔다라는가 이런 것은 혹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것은 조금 무리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주진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런데 제가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질문 주셔서 생각을 많이 못 해 봤습니다.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SK 사건 언급이 계속 나왔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2002년 사건이고 젖값도 치르셨고 심지어 사면도 안 받으셨고 23년 지나서…… 그 시대 상황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에도 후보자가 아닌 당이 먼저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불편한 점은 이것을 지금 현재 바라보는 후보자님의 시각입니다. 판결문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성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냐면 그 당시에 많은 영수증들이 있는데 영수증 처리를 잘못한 사안을 가지고 검찰이 조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국민의 법적 기준에 저는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딱 움직일 수 없는 장면이 있거든요. 현금 2억 원 정도를 SK 임원이 직접 가져

와서 후보자한테 전달을 했다는 것이고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는 말도 직접 했었고, 이게 판결문에 딱 나와 있어요.

과거니까 유감 표명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사안인데, 당시 장면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5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1만 원짜리다 보니까 이게 쇼핑백으로 따지면 한 6~7개에 들어가고 무게로도 23kg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딱 하나의 질문에 봉착하지요. 이게 만약에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고 합법적인 상황이었으면 계좌 송금하면 될 것을, 당시에는 기업의 후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좌 신고했으면 될 것을 어렵게 낑낑대고 그 많은 현금을 직접 들고 와서 주는 것이 과연 그 장면을 봤을 때 약간 불법성의 인식이 없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당시 2002년도의 1만 원은 지금보다…… 지금 5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 대졸 신입사원이 모았을 때 꼬박 9년을 모아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일단은 처음에 말씀 주신 법원의 판결 내지는…… 결과적으로 불법인 것 자체를 부정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아까 배준영 위원님이 질문 주셨을 때 이미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 최후 진술한 것을 기억하는데 ‘결과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안 돼서 불법인 것은 이것 어쨌든 제가 후보로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을 그때 했습니다.

다만 그때 동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좀 설명을 드려도 된다면,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당시 제가,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 가져오신다고—지금 SK 회장이 되신 분입니다—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들어갔더니 그분이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옆에 봉투가 큰 게 놓여 있었는데 6개, 7개는 아니었습니다. 뭐 하여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누구라고 하길래 ‘아, 그러시냐고’, 근데 제가 ‘뭔데요?’ 그랬는가 하여간 그랬는데 그분이 표현하기를 제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위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게 중앙당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판결문에 나온 대로 그분이 답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은 올해 이렇게 처리가 돼서……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후원회 실무자가 아니어서 그 회사에서 처리 못 하면 중앙당에서 처리하거나 뭐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제를 하고 선대위에 전달한 겁니다. 선대위에 전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당시 공당의 서울시장 선거에 쓴 것이고 그 회계도 선관위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로서는 그 이후에 확인해서, 전제적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진우 위원**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첫째, 이거 확인해 가지고 ‘내 앞에서 영수증 처리까지 안 되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 아니면 나중에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패장인데 진 다음에 아마 몇 천 장의 영수증이 있었을 텐데 제가 하나하나 다 훑어봤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선거법상 영수증이 미발급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법이니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추징금도 낸 것이고 사면·복권 안 되는 기간도 달게 지낸 겁니다.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시작 자체에 대한 표적성은 명백한 것이고, 제가 들었으니까—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검사가 얘기해 준 거니까.

그리고……

○주진우 위원 이십몇 년 전이잖아요. 어떻게 규명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청문회에 그 당시 그 대기업의 회장과 담당 검사를 찾아서 불러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우리 김현 간사한테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오셨던 분이……

○주진우 위원 현재 사람들을 불러야지 과거 사람을 왜 부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어떤 결혼식장에 오셔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한테도 안 미안한데 김민석이 당신한테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에서 후원회장을 맡아서 그 기업에 요청했던 분이 한 이십 년 지난 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네는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했나?’ 그런데 그건 당이 요청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이 도와주려고 한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말았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지금도 법원의 판결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억울하다 하더라도 실정하는 법 자체가 어려진 것에 대해서 이건 무의미하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황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종배 몇 차례 설명하셨던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경험이 그때 좀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보자께서 그때 보시고 선거관리 담당한테 넘겨주셨으면 그건 책임이 있는 거고 또 그 책임 때문에 처벌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유사한 영수증 미발급 사건의 다른 정치인, 그 이후에 구 여권에 속하는 두 분은 무죄가 됐던 경우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 이종배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느냐 본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을 제가 시비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비교는 안 해 봅습니다마는, 같은 경우인지.

어쨌든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 조금 억울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책임지는 건 확실하게 졌고 판결문 법원 판결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우리 주진우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다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출판기념회 문제에 진짜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법률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가 봐도 전혀 쟁점의 소지가 없게 이런 것들이 다뤄지면 좋지 않은가,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을 개선해서 그런 조금 미흡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피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법을 어긴 대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배** 저도 관심 갖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부분은 국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있는 제도를 가지고 지금 후보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또 그것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총리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총리가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으로 맡게 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기후위기시대에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결단을 통해서 1993년부터 시작되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1차 해내긴 했습니다. 1차 국가 통합물관리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량·수질·수생태계를 통합하는, 일정 부분 국토부와 환경부의 통합은 이루어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조는 이게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이 여전히 생공용수는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부, 산업용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소관이 나누어져 있고 기능도 제각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물 순환 주기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극심한 가뭄 같은 게 왔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먹는 물은 없는데 산업용수가 넘친다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에 광주·전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서 당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주암댐 저수율이 20% 수준까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광주하고 전남 11개 시군구는 조정 급수를 실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주암댐은 저수율이 20%대로 내려갔는데 그 근처에 있었던 보성강댐 여기가 산업부 소관 발전용수입니다, 그리고 담양호 이거는 농업용수라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통합 물관리가 가능했다라고 하면, 수량과 수질을 파악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면 ‘지금 먹는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생공업용수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좀 돌립시다’라고 하는 게 가능했을 텐데 이게 그 당시에 좀 어려웠습니다, 이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워낙 다급한 상태여서 한수원하고 수자원공사가

협의를 해서 보성강댐 용수를 주암댐으로 공급을 해서 결국은 생공업용수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기후위기시대이기 때문에 저러한 가뭄의 위험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2차, 현행 물관리 체계에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1차 통합 물관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2차,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실질적인 물관리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총리가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조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총리께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현재는, 민간위원장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조정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총리가 되신다면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시대에 적절하게 통합 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위한 질문을…… 혹시 세 가지, 농림·산자·환경에 관련한 종합 물관리에 지하수는 어디서 합니까?

○한정애 위원 지하수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그것을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통합 물관리의 필요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최근의 사안 중의 하나가 싱크홀입니다. 그런데 싱크홀이 지하에 어떤 건조물을 구축하는 문제 또는 지하에 GTX 관련한 그런 시설물을 새로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싱크홀 때문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불안함이 최근에 가중되고 있는 것이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지하수의 처리 방식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들어서……

○한정애 위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재난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통상적으로 환경부에서 해 왔던 물관리에 대한 지하수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물관리를 한번 생각…… 아마 그 지하수 부분은 종합 물관리에는 별로 영역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거는 이제 유출지하수가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영역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같이 체크하고 그때 꼭 한정애 위원님 모시고, 정부 측과 좌담회를 한다든가 간담회 할 때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으로 심각하게 자살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자살예방 종합계획도 수립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량적 목표 수립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공공의 책임도 강화하고 지방정부하고 협업 메커니즘을 강화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접근을 통해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자살률이 너무 높은데 이것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주신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총리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각별한 관심으로 제도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청년층의 자살률이 저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분들에게는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마치셨나요?

○한정애 위원 예, 이 질문은 끝났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다음 질문까지 하고 그러면?

○한정애 위원 그 다음 질문까지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시간이……

○한정애 위원 이게 시간이 좀 깊기는 한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것 급한 거여서.

미국 투자기업,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 종사자들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만 예를 들면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전체 558억 달러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문제는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현황을 보시면, 한국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과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 했지만 비자 발급 현황 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도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자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각 국가가 별도의 전용 취업비자를 발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는 협상을 통해서 아예 무제한으로 하고 있고요. 호주는 1만 500명, 싱가포르도 5400명까지를 하고 칠레도 1400명 이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미국과 별개의 협상을 통해서 획득해 낸 숫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적절하게 누군가가 가서 그 공장들이 정상 가동되게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전용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이유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비용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는 위낙 국제적으로 보면 감각도 있으신 데다가 미국 쪽에도 발이 좀 넓으시고 하기 때문에 미국 조야와도 잘 관계를 맺고 계시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게 정상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살예방, 마음건강 또는 깊은 층의 정신건강 이게 다 한 맥으로 통하는 새로운 현재 시대에서의 요구인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관련된 사업 영역도 넓고 관심 있는 일자리도 많습니다.

이게 하나 아쉬운 것이 지난 시기에 김건희 씨 관련한 것으로 이게 오염된 측면이 있

어서 좋고 필요한데 조금 정치적 논쟁이 있었는데 그 요소를 걸러내고 건전하게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정책과 이것들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관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렇고, 특히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의 후속 과정에서 비자 문제는 반드시 조금 더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자가 일반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를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떤 환대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간접 반영하는 지표인데 제가 어제 무슨 지표를 보니까 우리 여권이 통용되는 게 전 세계에서 2위인가 이래서 미국보다 높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전 세계에서 매력적인 나라가 된 거여서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국력을 비자, 일자리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미국과 특별히, 반드시 제가 한번 좋은 성과를 내 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배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오늘 청문회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치 후보자가 공적 지위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한 검은 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세우고 악마화 프레임을 써우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준영 간사님께서도 언론보도를 언급했는데 후보자는 어제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일방적 주장만을 계속 반복하고 트집 잡고 의혹을 또 부풀리고 언론에 소재를 제공한 건 바로 야당 국민의힘 위원님들입니다.

후보자는 거액의 납세 의무, 추징금을 외면하지 않고 이행을 했고요. 오히려 불합리한 증가산세를 전액 납부하고도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질의할 때 언급했던 신사복 광고료, 모델료가 2억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의 아파트 25평 평균 가격이 2억입니다. 아마 그걸 그때 샀더라면 지금 10억 정도 가치였을 겁니다. 후보는 지금 집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 샀었으면 지금 집이 있었을 거고요. 그 돈 2억 원을 결식아동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후보는 민주화운동으로 3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요. 그리고 보상금, 지금 계산하면 1억 5000 정도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후보께서 개인적 이익이나 사익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아까 같은 걸 바로 사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했겠지요. 저런 후보가 어제오늘 청문 과정에서 보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검은 돈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민주화 보상금 1억 5000도 계속 논란이 되는 1억 4000 채무, 아마 그런 게 있으면 채무 그 돈으로 갚았을 겁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자에게 국무총리 공직을 수행할 공적 윤리가 있는가 없는가,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했는가 아니면 반대인가를 판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밝혀졌습니다. 아마 후보자가 공적 윤리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지인들한테 돈을 1000만 원씩 빌려서까지 수억의 추징금, 중여세를 모두 갚았겠는가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순간 국가는 병듭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 3년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아마 후보자는 본인이 피해를 볼지언정 공익을 우선했고요 절제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보긴커녕 평생 손해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제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정치인이 있을까. 정말 바보 김민석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자신에게 들어온 돈조차도 국민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이렇게 물리친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사익을 취했을까 아마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여기에 시청하시는 국민들이 아마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야당에서는 정치적인 어려운 시기에 개인 채무 변제의 자금 과정을 사사건건 검찰 수사 표적 질의하듯이 트집 잡고 딴지를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남은 질의시간 동안 우리 야당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국정 능력, 정책 비전을 논하는 청문회로 임하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중의 또 하나가 경청하고 공감 능력, 배려 능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디 책을 봤는데 거기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후보자가 지난 겨울에 항공기 참사 당시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 심정을 밝힌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채현일 위원**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탄핵하던 새벽에도 이 탄핵조차 기각이 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원인 없는 고통의 억울함에 부모들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어떤 심정이었기에 그렇게 눈물을 두 번이나 흘리고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아마 현재 판결이 있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현재가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판결되면 법적인 논의는 별도로 하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그것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저는 총리로서의, 어떤 최고의 공직자의 덕목 중의 하나가 공감·배려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그런 게 너무 부족했기에 국민들로부터 탄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는 ‘약자의 눈’이라는 연구단체 대표를 했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채현일 위원**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다라는 소신으로 했는데요. 그게 아마 5년 연속 국회 의정대상을, 금년에도 받았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평생교육, 아동학대 지원 그런 등등이 있는데.

그리고 정책위의장 시절에 천원의 아침밥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신경 썼고요. 경로당 주 5일 점심도 아마 노인복지법 개정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것 제가 제안했었고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복지 분야의 여러 약자를 위한 정치를 했는데 가장 보람된 정책이 뭘까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뭐가 가장 보람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그려실 텐데 국회의원을 하면 사실 뭔가 구체적인 목소리와 요구를 들었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해결했을 때 갖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때그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민주화운동 보상금 같은 걸 신청하면 받을 수 있었다는…… 후보자께서 돈에 아주 감각이 없으신 분인지, 그런 걸 신청해 가지고 떳떳하게 꽉 갚고 그랬으면 나중에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고 갚고 이런 과정들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걸 신청을 안 하신 이유가 무슨 개인적인 뭔가 소신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무슨 돈을 멀리하거나 그렇게 훌륭하게 청렴한 사람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증가산 증여세를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 혹독하게 힘들었기 때문에 만약 그때 그것을 할 것을 생각했었다면 혹 제가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부분은 제가 그 신청 시기를 넘겼고 또 신청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그 이유는 저때 저희 어머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제가 이미 짊어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명예로 족하지 않은가. 제가 조금 더, 민주화운동을 하고 최소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정도를 하는 것까지 못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그렇게 경제생활을 하는 데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가는 것이 맞고 저희가 신청하는 건 조금 안 맞지 않은가 그 정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김희정입니다.

어제 주시기로 한 자료도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기록이나 성적표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오지 않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할 때 공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후보님께서 직접 작성한 자료에서도 오류가 있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에 이어서 역시 당신께서 직접 내셨던 자료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잘……

○김희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살고 있는 주소에 대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왜 본인의 주소지가 강신성 씨 소유의 오피스텔로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여기에 살지 않았으면 실제 살았던 주소를 알려 달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하시던 과정 중에 해외에 있을 때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그 주소로 옮겼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에 나가 있을 동안에는 김민석 후보의 어머님

집 주소로 되어 있다가 가족들이 한국에 오는 시기가 되어서야 오히려 강신성 씨 소유의 주소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 봐 주십시오.

이렇게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앞서 도표를 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때 한국에 도착해 있다라는 것은 최고위원회의에서의 김민석 후보 발언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어디 살았는지. 전 부인도 인터뷰를 하셔서 한국에 있었던 시기랑 미국에 있었던 시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이것은 후보님 본인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강신성 씨 소유 오피스텔에 주소 옮겼을 때는 해외에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셔서 그때 언론을 찾아봤더니……

앞으로 돌려 주세요. 저랑 시트 속도를 좀 맞춰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후보님이 한국에 명확하게 있었던 시기와 강신성 씨에게 주소를 뒀던 시기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쭉쭉 넘기시면 됩니다. 쭉쭉 넘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역시 가족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서울에 있다라는 것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지에 대해서……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소만 저기에 두고 있고 그랬다면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었고 왜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제시하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살았던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주소 불명지였던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공적 문서에 대한 신빙성이나 사적 문서를 대하는, 이 문서에 대한 태도를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가 비행기편 말씀드렸고 주소지 말씀드렸고.

이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를 보면 명확하게 강신성 씨하고 돈 빌렸을 때도 23년에 이렇게 반환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는 각각 어떻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고 그 날짜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합의하여 상환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약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재계약을 맺는 거라든지 갱신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깡그리 이걸 무시를 했어요, 돈을 줘야 되는 쪽도 받아야 되는 쪽도. 그리고 후보로 임명되자 그것을 한꺼번에 깊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실제로 지킬 의향이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로 생각하고 문서를 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서 보겠습니다.

한강빌라 전세계약서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실제 전세가 있었는지, 정말 돈의 흐름이 있었는지 통장 내역이든 전세금이 정말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고 금융실명제, 뭐 이렇게 하면서 제출 안 했어요.

그런데 사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증명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전세계약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전세계약서는 전세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모친과 그리고 장모님 이름만 나와 있을 뿐이지 이것을 공인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이름·주소·사인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 아는 데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후보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들어갈 때 계약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똑같이 아는 데서—부동산—했지만 저렇게 어느 부동산에서 했는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낸 서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부인하고 말을 바꾸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면 계약 관계라든지, 사적 계약관계, 공적 계약관계, 국가에서의 계약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서를 대하는 태도나 그것의 증빙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데 있어서 전혀 연습이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어제 계속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법원 판결까지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표적 사정 성격이 있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기업으로부터 돈 받았을 때 본인이 표적 사정을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강금실 법무부장관 시절이었고요.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정권에서 본인이 무슨 펫박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반성이 없기 때문에 또 동종의 이런 불법자금 수수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신성 씨로부터 구체적으로 돈을 받은 내역이 이렇게 판결문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날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계좌를 바꿔 가며 이렇게 돈을 받고 그때마다, 17대 대선후보 나올 때 18대 총선 나올 때 최고위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돈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또 넘겨 주세요.

그 이외에도 또 다른 범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등록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넘겨 주세요.

수많은 날짜에 걸쳐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매번 새로운 명의의 새로운 계좌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 달러, 홍콩 달러 할 거 없이 돈을 받아 놓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중단시켜 주십시오. 저게 뭡니까, 저게?

○김희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표적 사정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뭐예요, 저게.

○곽규택 위원 판결문에 있는 문서들이 범죄라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 똑같은 것 반복……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괜찮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문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과연 향후 큰 공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마땅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주장을 빼고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제출 말씀 부분 중에 우선 출입국 관리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에 제가 이미 중국 관련 출입국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전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소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야당 위원님들이 제 신상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문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의를, 아마 필요성을 느끼셔서 하는 것이라고 보고 계속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 문제에 대한 김희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죽 답을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주소 문제를 질의하는 의의가 그 주소 문제에 대한 답변이 만에 하나 제가 ‘저는 거기 살지 않는데 주소만 뒀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입증할 것인지를 대단히 불명확해서 저로서는 사실은 이유를 잘 알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은 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와 함께 말씀 주신 몇 가지 사안들을 엮어서 공적 문서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의 부족함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기하신 몇 가지 문서들은 다 공적 문서가 아닌 사적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합의 문서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법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 채무와 채권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희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혹은 문서에 의해서, 혹은 계약법의 원리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 문서들은 다 채권·채무 관계를 특정해서 합의문이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합의가 구두로 존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이자 송금에 대해서 실체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궁금해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전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이것이 실제로 오갔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과 함께 그것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통상의 다른 계약 중재자의 이름이 명료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 첫째는 전세금 계약이 그 이전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마는 어떤 업체 그다음에 제 아내 그다음에 장모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인테리어 비용과 당시 시가를 반영하는 것 외에는 실거주자들이 그대로 실거주하면서 그 액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거기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도 제가 취할 수 없는 것이 명료한 실체적 거주의 전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굳이 문제 삼을 이유가 별로 없고 그 계약을 중재했던 사람이 지인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당

사자들 채권·채무 관계가 모녀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엄격하게 안 쓰고도 상호 이해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 설명에 비추어 본다면 제가 동일한 저 문서에 대해서 말을 바꾸거나 아니라고 부인한 바가 전혀 없다. 공적 서류에 대한 제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으실 이유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공적 문서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한 공정성을 가지고 다루었던 어떤 사례를 갖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법원 판결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러한 법원 판결이 있음에 대해서 제가 표적 사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장관 때 시기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하에서도 현재 검찰에서 프로 고발리에 대해서 제가 되면 다음 날 그것이 배당되는, 그리고 그것도 국무총리후보자에게만 배당되고 동일한 사건이 다른 경우의 야당 의원에게 고발이 되면 전혀 진전이 안 나가는 그러한 현실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하에 있을 때에는 검사들이 당연히 표적 사정이라든가 나쁜 짓을 안 한다라고 전제해서 질문 주시는 것은 너무나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조금 낭만적인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강신성 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신성 씨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을 당시 특가법으로 증인으로 서려고 할 때 몰아붙이려는 증언 압박 때문에 증언을 못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필요하지만 나와서 증언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배 후보자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정책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펌훼하고 계속 명예를 훼손하는 질의들이 있어서 한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금실 장관, 노무현 정권 시대에 여기 후보자께서는 그야말로 참 아무나 옥해도 되고 아무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럴 정도의, 마치 그리스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도편추방제도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하는데, 도편추방을 당한 지도자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봐줍니까? 아무나 패도 되는 사람처럼, 그 속에서 저쪽 국민의 힘의 전신인 당의 보호를 위해서 그쪽은 무죄받고 후보자는 유죄를 받았는데 ‘다 책임졌지만 억울하다’ 그 말을 왜 못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입막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 주진우 위원도 인정했다시피 ‘당이 먼저 부탁했다’ 판결문에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피스텔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영국·미국·일본·중국·캐나다 5개국에서, 6개월 이상 산 나라만 쳐도 5개국입니다. 10년 정도 해외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쳐가에도

주소지를 갖다 놓기도 하고…… 어느 오피스텔은 들어가면 주소지 못 옮기게 해요, 전입신고 못 하게 해요. 또 어떤 오피스텔은 되고 또 어떤 오피스텔은 되는데 주인이 싫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 맞게 이 복잡한 환경에서 역경을 뚫고 나왔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따뜻하고 좋은 데서 사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험난한 세월의 그것을 돌파하는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가족 간의 계약서에 왜 중개사를 끼지 않았나? 왜 낍니까? 이상한 것 아니에요?

○김희정 위원 가족 간 계약 아니었습니다. 남남 간 계약이었습니다.

○박선원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가 발언하고 있으니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김민……

○김희정 위원 제 발언 중에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박선원 위원 좀 이따가 신상발언하세요.

김민석 후보자를 쭉 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스스로에게 정말 엄격하다 또 어떨 때는 참 독하다 또 완벽주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을 느끼면, 아주 짊었을 때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동일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과 역사를 위해서 내가 받은 소명, 반드시 뭔가 이뤄 내고 말리라고 하는 결심과 확신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담금질하고 단단하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드러나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종배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주화 운동 보상금도 받지 않았다. 사족으로 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하면 된다는 것 오늘 알았으니까 생각해보려고 그러고요.

나토 회의 불참 정말 결과적으로 잘된 일입니다, 후보자님.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또 인도·태평양에 있는 주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나라 또 영미권의 가장 가까운 호주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본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폴 케네디가 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보면 왜 제국이 망했는가 할 때 자기 국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멀리 팽창했을 때 망한다, 그래서 오버스트레치(overstretch)라는 표현이 있지요. 국력과 역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멀리 진출한 경우는 망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안보 대상이 있고 우리의 안보 목표와 평화의 대상이 있습니다. 일단 북한과의 군사 긴장 완화를 풀어 가면서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켜서 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지 않게,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특히 지금 임기 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3일, 4일을 비우는 것은 매우 오랫동안,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비를 5%까지 올리라는 이런 압박, 지금 현재 우리 GDP의 2.4%인데 5%로 올린다 하면 현재 61조 원이 약 135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생에 각각 써야 될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세수 기반 다 망쳐 놨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내정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단단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후보자님께서 대통령님이 되시기 이전에라도 국제 정세 또 안보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고 또 철학적인 토대도 함께 보다 공고히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총리로서 우리 안보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너무나 방대한 것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

중에 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박선원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번에 대통령님의 나토 불참을 놓고서 일각에서 혹시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일종의 친중반미적 성향의 반영 아니냐라고 우려하거나 또는 심지어 비판하거나 비난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 어떻게든 만날 수 있을 때 단 1초라도 만나면 좋겠다라는 선의에 기초한 일리 있는 문제 제기일 수는 있으나 크게 보면 꼭 맞지는 않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요하는 대목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나토 회원국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세션을 두 시간 반으로 줄일 정도로 실제의 위상이 줄어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또는 급거 귀국이 다시 G7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한국의 결정 이후에 한국의 결정까지를 감안해서 불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번의 불참 결정에 대해서 무슨 반미친중이니 이런 것과 관련해서 프레임을 갖고 공격할 소지는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는 최근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보에 있어서는 첫째, 한미 간의 동맹이 기본 축이다 그리고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 일본과의 협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또 통상 민주당 정부 또는 민주당 정권이라면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 안보 순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안보를 푸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한국의 K-민주주의 역량이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높여서 앞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전략적 인식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고맙습니다.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일부에서는 자칫 잘못해서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말씀은 전혀 염려할 사항 아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 하는 말씀 해 주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위원장 이종배 종전에 문재인 정부 때 좀 약화됐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 같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예, 3분 드릴게요.

○배준영 위원 배준영 간사입니다.

후보자님,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께 해야 됩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후보자는 우리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1건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스무고개처럼 국무총리 후보자 입만 보고 우리가 계속 이 회의를 해야 됩니까? 저희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후보자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 중에, 결격사유 열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소명된 게 없어요. 이대로 계속 회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간청하고 후보자에게 또 경고합니다. 저희가 달라고 했던, 의결을 하고 요청했던 자료 지금 즉시 내시고요. 만약에 안 되시면, 저희가 지금 2차 질의입니다. 아마 2차 질의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할 텐데 3차 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부 다 내 주세요. 지금 언론의 평가도 그렇고 국민적 평가도 그렇고 후보자가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소명도 하지 못하고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게 평가입니다. 이런 청문회를 계속 유지하고 발언한다는 게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은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2차 질의는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3차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위원장님, 모든 자료 꼭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어제 후보자께서 줄 수 있다는 성적표 사본 또 중국의 청화대 교육 기간 동안에 방문했던 출입국기록이라든지 또는 1억 8000 대출하고 이런 것들 몇 가지는 후보자도 주실 수 있다고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런 것들도 하나 안 들어왔다고 아침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배준영 위원 도대체 뭡니까, 이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배 예, 말씀하시지요.

빠른 시간 내에 줬으면 좋겠어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관심이 많으셨고 또 양이 많다고 생각되는 출입국기록, 중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는 너무 늦게 끝나서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었고 아침에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동의를 했으니 법무부에 제출하라라는 뜻을 전했고 아직까지 안 됐다고 말씀을 들어서 출입국기록의 신속 제출을 이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미 이 기록을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죄송하지만 인사청문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능멸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있는 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전임 총리들이 제출한 규정에 따른 부분은 다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추가로 제출을 하겠다고 동의를 표시한 부분은 그 범위를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적 동의를 해서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출입국기록을 필두로 해서 그렇게 제출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그러한 어떤 조건부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법규와 관례에 의해 정해진 이상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한 추가적 동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정리되는 것들이 청문회의 정리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적된 바 청문회의 지금까지 과정에서 명백하게 국민의 오인을 가져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청문위원들의 대외적 발언 또는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중여세 납부 내역도 안 내시겠다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지 않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과연 말씀하신 10대 의혹의 시정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중여세 납부 내역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종배 하여간 후보자께서 주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주시고 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못 주시면 못 준다고, 왜 이런 이유로 해서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좀 얘기를 해 주시면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종배 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앞서 이미 제가 오전에 배준영 간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에 반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증거를,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못 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한두 군데를 빼고는 없다는 점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사설의 주요한 근거가 됐던 것은 어저께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제출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 당은.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제출한 것은 오직 7건이다’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고요. 배준영 간사도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해서 그 발언이 오늘 사설에 또는 기사에 반영된 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1000건은, 한덕수 총리는 가족이 단출하시지요? 반면에 김민석 후보의 경우는 가족 관계가 조금은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가 2배 가깝게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50% 가까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배 간사께서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겠다, 능멸하고 있다라는 격앙된 말씀을 하시는데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자료와 관련되는 겁니까?

○주진우 위원 예.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시지요.

○주진우 위원 저는 중여세조차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부, 그 현금 6억 원의 용처와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라고 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며칠의 언론보도에서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치갓집에서 2억을 지원받았는데 현금 1억, 송금 1억이다. 저희가 뭐 다른 자료 요청했습니까? 중여세 납부했는지 여쭤봤더니 중여세 납부했다라고 얘기했고, 중여세 납부 자료에 보면 그게 얼마인지 금액도 확인될 것이고. 실제로 현금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현금이 오고 가는데 이게 뭘 어떻게 규명해서 중여세를 신고했다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저는 의문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8억 원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소명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후보자께서 저를 밖에서 인사청문회 열리기 전부터 ‘법무부장관 지명해서 저 한번 털어 보자’라는 글에 동조하셔서 올렸습니다. 저도 참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내리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인사청문도 열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좌표 찍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의혹에 저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고 인사청문회 과정 안 하고 저도 도리 지켜가면서 자료 달라고 하고, 있는 자료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는 저를 토대로 해 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특검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탄압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숫자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얘기 했습니까? 전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금으로, 국민 모르게 현금을 쓰다 보니까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 달라는 것이고.

○전용기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협박에 가까운 거지요. 너 특검 수사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야당 위원이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총리후보자 정도 되면 이런 게 수사 가이드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가면서 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란 특검 말씀하시는게 아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역구가 여의도인 후보자는 비상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저는 당시 여당이었는데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 수사 누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밖에서 그런 식의 온갖 조롱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료까지, 이제는 중여세까지 안 내겠다? 이것은 지금 국민이 보셨을 때 직관적으로 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여세는 반드시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배 중여세 납부를 하셨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납부하셨으면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주진우 위원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예.

○전용기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배 자료 요구하는 겁니까?

○전용기 위원 자료 요구 관련해서 저희도 말씀드릴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 가지

고요.

○위원장 이종배 예, 간단히 해 주시지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위원 예.

자료 요구에 대해서 후보자가 잘 주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늘 나왔습니다. 늘 모든 정권에서 나왔고 저도 자료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청문회에 들어가도—저도 의정활동 5년째인데—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 비슷한 유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기록·외환신고필증 이런 걸 달라 하니까 당연히 못 주는 거지요. 전 배우자한테 어디 나갔다 왔냐, 해외 어디 갔다 왔냐 그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대답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퍼센티지에 넣으니까 마치 많은 자료를 안 준 것 같지만 줄 수 있는 자료는 다 줬고 본인이 동의했다는 얘기를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줄 수 없는 자료들 가지고 퍼센티지 넣어 가지고 마치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안 주고 있다라는 형태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충분히 필요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6억 원에 대한 용처 계속 말씀하시는는데요. 연도별로 추징금 납부하신 현황을 우리가 전체 의원실에서 다 받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PPT도 만들고 어떻게 납부됐고 몇 년도에 납부됐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6억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뭐가 들어왔고?

그리고 후보자가 밝힌 것처럼 세비에서 절반 이상씩, 절반씩은 같이 납부했다라고 하면 대충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이미 상 당했던 그 조의금 그리고 출판기념회에서 받았던 그 비용들로 충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더…… 현금이니까 더 다른 소명이 필요하다? 현금이니까 어떤 자료로 소명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부터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숨기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금 6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선입견을 주는 방식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계시글도 열한 차례 쓰셨어요. 그리고 6억이라고 하는 것을 장롱안에 넣어 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유튜브 제목에도 박아 놓고 섬네일에도 박아 놨습니다.

○주진우 위원 후보자도 현금 오류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제목에도 박아 놨잖아요. 그것 사람들이 보면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어떤 거짓말이라도 충분히 자주 반복되면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 이것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요. 나치가 선전·선동할 때 핵심적으로 쓰는 선동 전략입니다.

의미 없는 금액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양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나치랑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해명이 충분히 됐으면 그 부분은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청문회에서는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 이종배 예?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말씀 안 드려도 되면 말씀 안 드리고요.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종배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한 어떠한 청문회 관련 규정에도 청문회에서 특정 정당의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몇 프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비율 규정은 없습니다. 질적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어떠어떠한 자료는 제출할 수 있고 어떠어떠한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납부 내역은 어제 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요구됐다고 해서 그것을 비율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질적 규정에 충족하는 부분은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너무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추가적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만 저는 어제 청문회가 끝나고 사실은 돌아가서 쭉 이렇게 보도된 것들을 보면서 상당한 낭패감 내지는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인데 납득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낭패감을 가졌다는 저의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또 주진우 위원님께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주셔서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여기서 다 확인된 가운데 다른 내용들은 추가적 자료제출에 의해서 인정하신다 하더라도 현금 6억을 장롱에 쌓아 놓고 있었다 하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미 누차 여기서 확인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관련된 계시글을 내려 주시고 그것을 해당 정당의 현수막에서 철거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거나 또는 적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당사자가 어려우면 간사님이라든가 참여 위원들의 결의로 그것을 당에 요청해 주셔야 저도 그것을 일정한 이해 위에서 이것을 전개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최소한의 어떤 도의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꼭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주진우 위원 그거랑 자료제출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기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저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지켜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자료 제공 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질의 진행을 하시지요.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1차 회의 때부터……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종배** 위원장이 발언 중입니다.

1차 회의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촉구했고 자료제출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누가 와서, 그 담당자가 오든지 누가 와서 이 자료는 왜 제출을 못 하겠는지 설명을 하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구 하나 와서 이 자료는 왜 제출을 못 한다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찾아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위원장이 이 자료는 빼고 빼고 빼고, 그래서 나머지는 낼 수 있는 자료는 뭔데 아래 가지고 거기서 몇 퍼센트 냈고 이렇게 정리가 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됐는데도 ‘우린 못 낸다. 이건 뭐 사유가 있어서 못 낸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서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기 준비단에 단장도 있을 거고 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책임지는 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와서 설명을 하든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후보자에게 맡겨 가지고 후보자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준비단에서 잘못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후보자께서도 저한테 이런 자료는 이건 제출할 수 없으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렇게 양해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제가 양해가 되면 위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하면서 좀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후보자나 또는 준비단의 잘못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채현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종배**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드릴게요. 누가, 꼭 하실 분들 상의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기형 위원** 의사진행 먼저……

○**위원장 이종배** 예,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국민들이 같이 보고 계셔서 함께 그래도 이 상황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잠깐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현금 6억 원을 집에 쟁여 놓고’라고 하는 문구를 표현을 했고 또 그 속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면 저는 이건 검증의 영역이라

고 봅니다. 논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현금 6억 원을 집에다가 쟁여 놓고 하는 것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만약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면 고발하는 거지요. 그 고발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책임지는 거고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후보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논쟁을 하다가 보는데 후보자가 해명을 못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허위냐 아니냐가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면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허위가, 그러니까 이 ‘현금 6억 원을 집에 쌓아 놓고’라는 것이 허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왜곡이다, 짜깁기다 또 악의적 프레임이다 그런 반론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면이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문제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정활동과 연관돼 있지만 밖에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과규택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논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허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중에 입증을 해야 되고, 즉 ‘현금 6억 원을 집에다가 쟁여 놓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런 판단이 그 말 자체가 사실임을 오히려 입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신빙성 있는 근거가 있었음을 제출을 해야 되고. 물론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건 조사받으면서.

저는 지금 현재 몇 가지 논쟁을 하는 것에서 재산과 관련된 건 논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논쟁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현재 후보자의 도덕성 그다음에 국정 판단 능력, 국민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는 부분은 논쟁의 영역으로서 많이 할 수 있고 지금도 이런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각 이슈를 할 때마다 그러면 후보자에게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어떤 지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걸 묻는다 그걸 좀 더 밝혀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국면적으로 쭉 몇 가지, 이 이야기를 처음에 할 때는 사실관계가 좀 불투명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겠지만 어제오늘 사이에 해명된 것 중에서 그 말이, 후보자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역으로 지금 ‘현금 6억 원을 집에 쌓아 놓고’라는 말은 허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할 거냐는 문제가 또 나서지 않습니까? 입증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자백해라 자백해라고 이야기할 거냐, 그렇지 않고 실제 종래에 있었던 것에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있으면 그것 좀 다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위원** 후보자님, 이게 제 인사청문회입니까? 제 인사청문회예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제출 연동이라…… 만약에 정말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상대로 직접 고발을 하십시오. 저는 허위사실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그런 거 갖고 고발할 필요를……

○**주진우 위원** 제가 올린 글이 몇십 개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고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요. 허위사실이라고 이미 주진우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진우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증여세 납세 내역을 내라고 하는데 계속 제 글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니, 주진우 위원님이 아까 6억을 쟁여 놓은 뜻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심으로써 6억을 쟁여 놨다는 오인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희 공방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아셨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아셨는데 왜 이것을 지금 제가……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국민들이 대부분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자, 조용히 하시고요.

○**주진우 위원** 후보자님 밖에서 공격했을 때 저는 한 번도 대거리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6억 쟁여 놓은 거는 그거 아니고 6억을 현금으로 받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6억 받아서 쟁여 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설명이 아까 다 돼서 아마 시청자들도 다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채현일 위원** 위원장님!

○**주진우 위원** 그런 전체 취지가 있는 거지요.

○**채현일 위원** 의사진행 한번……

○**위원장 이종배** 됐습니다. 제가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늦어 가지고.

자료는 적극적으로 또 성실히 빨리 조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은데 또 잠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열한 사람에게 1억 4000을 차용했다는 그 사안, 여기에 대해서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어제도 오늘도 녹음기처럼 같은 내용의 공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 차용 사실 또 차용증 이것은 후보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공개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드러난 사안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누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숨겨 놨는데 발견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신고하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 중에 일부가 문제를 제기하듯이 만약에 이게 부정한 거래였고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었으면 그냥 몰래 받아서 쓰면 되지 굳이 차용증을 왜 작성은 하고 또 재산등록을 했겠습니까?

또 일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니까 저렇게 몰아간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도 이 정도 되면 수사를 중단합니다. 왜냐? 아무것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거래가 아닌 것이 너무도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잠시 말씀하셨는데 2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보통은 정치자금 수수 액수가 2억이 넘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벌금을 600밖에 선고를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법원이 이 사안은 무죄나 다름없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 버렸던 그 판사와 또 집행유예라는 1심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던 그 판사의 체면과 그 동안의 과정 이것을 한꺼번에 뒤집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뿐 나는 이것을 사실상 무죄라고 본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도 이 해석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민정수석을 과거에 지내시고 윤석열 정권에서 공기업 사장을 지내신 어떤 분께서는 그 사건을 지켜보고 저에게 논평하시기를 이것은 혹 법규에 어긋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사실상 가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법적으로 해석해 주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좀 무죄가 되거나 수사가 불기소에, 입건 유예에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적은 형량일망정 유죄가 되고 또 많은 추징금을 내야 하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참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청문회의 제도 본질에 맞게 정책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3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노동의 사각지대가 점점 더 넓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부의 작년 통계를 보니까 비정규직이 845만 9000명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38.2%를 차지합니다. 플랫폼노동자는 88만 명, 공공무기계약직은 31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공공 부분의 영역에서도 학교 급식조리사나 공공기관 청소 노동자처럼 어떤 정규직의,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차별적인 정규직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또 택배기사나 라이더라고 합니까, 배달기사들처럼 이런 분들은 어떤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상태에서 정말 불안정한 지위의 삶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정치라는 신념을 가진 분이신데 그렇다고 본다면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어떤 근로자들의 불안한 지위를 해소하고 또 처우를 향상하기 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또 희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큰 포부를 갖고 시작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책으로서의 문제해결에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약자라는 측면에서 해결돼야 될 측면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고용 형태 자체가 상당히 유연화되는 어떤 시대적·세계적 추세도 반영하는 것이 있어서 딱 잡은 정답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돼서 여러 가지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현장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이러한 정책적 해결법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한 걸음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그렇게 노동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들의 고민과 지혜, 해결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잘 조율되도록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각도에서 관심도 갖고 공부도 더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많이 다뤘던 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잘 배워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 광주 금호타이어에 큰 화재가 나서 근로자를 고용 위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중에 보충질의 때 그 문제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박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후보자님,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어저께 이 청문회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신 자료가 있어요. ‘혹시 2023년도의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보관하다가 2024년도에 추징금 변제하신 것 아니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2024년도에 1억 8000 대출받아서 변제한 것이다’ 답을 하셨고요. 또 ‘11명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 채무 있던 건 어떻게 처리했냐’ 하니까 ‘2025년 1억 5000 대출받아서 변제했다. 이 자료들은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이기 때문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오셔 가지고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망스럽고요. 만약에 그 자료가 확인이 안 된다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출판기념회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해 가지고 수익금, 찬조금을 받았으면 그게 불법이 아닌 이상은 상관없는 것 아니냐, 제도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또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출판기념회 찬조금의 뇌물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2015년 법원 판결로써 이미 정해진 사안이에요. 2013년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여당 국회의원, 문교위의 위원장이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유관기관에서 찬조금으로—축하금이지요—336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때 판결문에 뭐라고 적시가 돼 있느냐면 ‘금액의 규모, 출판기념회의 취지, 돈이 조직적으로 건네졌는지 여부, 특정 직무행위에 대한 공여자 측의 기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출판기념회에서의 찬조금도 뇌물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어저께 출판기념회가 쟁점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도 떼워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억 5000만 원 찬조금 받으신 거잖아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출판기념회의 취지, 신인 정치인이 알리려고 한 것 아니지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한 겁니다, 책 제목도 그렇고요. 조직적으로 건네졌는지, 어제 보셨지요? 대한의사협회·간호

사협회·치과의사협회 이런 데서 홈페이지에 출판기념회 한다고 떠 있고 막 그래요. 특정 직무행위에 대한 공여자 측의 기대, 찬조금 낸 사람들 그런 유관기관 단체분들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어제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신 자료 지금 안 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해명이 됐다고 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런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 받으신 부분 이런 부분은요 이제 인사청문회 영역을 넘어서 저는 수사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 안 한다면요 김민석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제는 자료로 해명하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강신성 씨 문제, 중인으로 못 나오지요. 못 나오는 분입니다. 왜 강신성 씨를 제가 오전에 언급했나 하면요 민주당 측 관계자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강신성 씨와 김민석 후보자의 관계 20년 동안 지켜봐 왔다. 과거에 판결문상에 강신성 씨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돈을 준 거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 이후에는 달라졌다고 봐야 돼요. 지금 20년 넘게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시고 2016년 그때 20대 총선에서 원외 민주당 비례대표 1·2번 같이하셨잖아요, 이분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대선 선거조직에도 이분이 간부로 계세요.

그리고 이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예전에는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주소가 광명으로 옮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확인해 보니까 2017년에 이언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하면서 그 광명을 지역위원장이 비게 돼요. 이분이 지역위원장으로 갑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한 이후지요, 이후에. 그러니까 광명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낙하산이라고 막 반발을 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강신성 씨를 비롯해 가지고 11명 한테서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는 겁니다. 이 후원자 그룹의 단톡방도 있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강신성 씨가 광명을에 경선 출마했지만 양기대 씨한테 져 가지고 탈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광명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 중에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으로 출마하시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국무총리직에 가시면 그동안 과거의 인간관계, 마음 아프지만 끊으셔야 됩니다. 스폰서, 후원자라고 하시는 분들요 20년 동안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지원해 주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혜택 보는 거예요. 국무총리 가시면 최소한 국회의원직은 사임하셔야 됩니다. 당내에서 최고의 실세로 이제 부상하시는 거예요. 국무총리를 겸한 당내 최고 실세 이런 분한테 이런 후원자를 가만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언을 드립니다. 강신성 씨와의 관계 단절하시고요. 지금 국무총리직을 스스로 물러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회의원직이라도 사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충언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예,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제가 몇 가지 전제를 달았습니다마는 법무부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것은 제가 동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해라라는 말씀을 법

무부 측에 전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측에 제가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아까 이종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자료는 되고 이러한 자료는 안 된다라는 설명은 사실은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통상 이런 경우에는 총리실의 준비단에서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후라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출판기념회는 뇌물성이다 또는 출판기념회에서 댄 책값은 그것이 평균 얼마가 됐는지와는 상관없이 찬조금이다라고 규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동의하느냐 아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마도 이것은 출판기념회 전체에 대한 법적 규정을 꽉규택 위원님께서 다시 하시지 않는 한 대부분의 동의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대략 이것이 평균 어느 정도의 액수로 출판 축의금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현재 출판기념회상 주어져 있는 법 규정에 어긋나는 분이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어떠한 입증할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신성 씨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마는 꽉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지적하셨다시피 강신성 씨는 지난번 최초의 정치자금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피해로 해서 저와는 다른 후원적 금전 관계가 있지는 않고 말씀 지적대로 정치를 하는 분으로 신분이 전화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계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관계 이외에 다른 금전적 관계가 후원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억 4000을 차용하는 데 있어서도 맨 마지막에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차용증을 쓰고 차용을 받고 이자와 원금을 돌려드린 것이어서 그분과의 다른 관계가 인간적 관계든 어떻든, 제가 좋아하든, 100을 좋아하든 1000을 좋아하든 그분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은 것과 무슨 어떤 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주신 총리가 될 경우에 국회의원직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으로 그냥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본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은 후보께서 준비단에다가 이렇게 미루실 일이 아니고 어쨌든 후보가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제대로 가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설명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후보께서 그런 걸 다 챙기셔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위원장 이종배 꽉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정책질의 좀 하고 싶은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출판기념회를 검은돈 거래 장소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 신인들이나 장관 출신들도 출판기념회 하세요. 그렇게 본인을 알리는 장소로 쓰시는데 단순히 저서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이것 검은돈 거래 장소로 볼 거면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한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다 사직시킬 겁니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이종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치니까 본인은 하지 않으셨는데 김동원 출판기념회에 축하 영상 보내셨더라고요. 그 검은돈 거래하는 장소에 축하 왜 보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전용기 위원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굳이 저 사람 잘못됐으니까 잘못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정치 신인들이나…… 장관 출신도 정치 신인으로 볼 수 없는데 출판기념회를 왜 하냐, 검사 생활 잘하다가 돈 많이 벌고 용산 한 번 갔다가 갑자기 공천받은 사람들은 본인 알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급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정치 현실을 무마하고 나는 배지 달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출판기념회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은 검은돈의 거래 장소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내에서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굉장한 민폐를 끼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의 영역이다’. 이미 그 6억 원에 대해서는 소명 다 됐고 추징금 냈고 자기 세비 털어 가지고 돈 내고 한 것 다 규명됐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그 책에도, 자료에도 다 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디에서 받아 왔는지 출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증여세 냈다고 했는데 수사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증명해라? 아직도 윤석열 검찰 정권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하고 수사해 가지고 나올 때까지 털고 주변 사람 털고, 옆에 뭐 강 모 위원장 얘기하는데 지인들 괴롭히는 것 유명한 게 정치검찰의 특성 아닙니까?

배우자 털고 자녀 털고 친인척 털고 지인 털고, 기본적으로 전 배우자 증인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설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봤고, 지금 까지 자료 요청하는 게 아들 돈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소설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청문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식선에서 검증을 하고, 자료 안 주신 것은 달라고 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검증해야지요. 그런데 역족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국민 앞에 서 있을 자신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한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비슷한 생각을 안 가지시더라도 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횡금티켓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수 과학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전부 의대 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버렸지요. 실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능이나 흥미와는 무관한 공부를 하고 똑같은 스펙을 쌓아서 취업을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다양성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출생 문제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결혼을 늦게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내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겠느냐라고 하는 당연한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티켓 증후군이라고 하는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요 해당 보도를 제가 보내 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가 지속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노동 시장 사회구조 속에서는 이것을 해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인데 사실 이것은 저는 전용기 위원님께 자료도 받고 싶고 아이디어도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비교적 여러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하고 미리미리 고민해 보는 편인데 이건 사실 뾰족한, 탁 화두가 잘 안 떠올라서 좀 고민입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사실 무한 경쟁의 루트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때도 내 친구보다 1점이라도 높아야 내가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학문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보니까 서로 간에 공격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건데 생존 경쟁을 위해서 경쟁하고 낙오하니까 무기력해지고 출생을 기피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 유기적인 문제다.

세계적으로 K-드라마, 케이팝, K-문화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이 한계에 다다랐다, 지금은 최고의 상황 같지만 그 부분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겠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 묻고 싶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건 의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결국 정책이 방향과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정책이라는 게 윤곽이 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것은 어차피 후보자께서 의지만 보이시면,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건 한번 총리실에서 우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TF를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하고 위원님도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관련 전문가와 우리 공직자들을 모아서 한번 하고 저도 그때 같이 한번 토론을 해서, 이런 새로운 이슈를 한 두 번 정도씩 한번 돌려서 토론해 보는 걸 저는 아주 즐기니까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대 간의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5살만 차이 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지엽적이지만 한 가지만 여쭈고 싶은데 지금 국제질병분류 정신 질환 코드에 게임이용장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게 10월 되면 한국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게임이 사실상 중독에, 마약같이 분류가 돼서 되겠느냐, 문화가 다른 거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질병분류코드에 게임이용장애가 등재가 되고 한국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갑작스럽게 자기가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저도 사실 퇴근하면 집에 가서 머리 풀 때 게임하고 하거든요.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챙겨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황금티켓 증후군뿐만 아니고 게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세대 간의 불평등 내용,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실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과 관련된 국제질병분류코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게임을 어떤 정신 또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있는 그대로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또 문제점도 보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존에는 그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 등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일종의 신속 미니 정책 TF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것을 정리해서 어떤 부분은 당정 협의로 넘기고 어떤 부분은 정부에서 고민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번에 특별히 인천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다 정책질의를 해 주신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다, 아주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참고로 출입국 자료는 제출됐다고 지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확인하시고요. 김희정 위원님 확인하시지요.

○김희정 위원 학교 성적표도 같이 준비를.....

○배준영 위원 아니, 계속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이종배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행정실과 의원실 요청 이렇게 들었는데 저한테 메모가 와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더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 요청한 거고요.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오전에 제대로 말할 기회가 없어서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홈플러스 문제하고 우리 자본시장, 주식시장 이야기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MBK 사모펀드가 홈플러스 인수했다가 기업회생 절차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민원입니다. 저도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서도 받았고 직접 전화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들어갔는데 청산가치가 3조 7000억, 계속기업가치가 2조 5000억 그래서 청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약 1조 2000억 정도가 캡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M&A 할 수 있는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을 보니까 점포가 126개가 있고 근로자가 1만 9000명, 2만 명 좀 못 되는데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들과 이해관계자가 더 있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규모 있는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인데 이 회사가 이후에 폐점을 하든지 또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해고 등등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의 문제를 국가가 무조건 책임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납품업자들이나 실직 위기에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정부가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뭔가 이에 대해서 의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서면질의를 한번 따로 했습니다. 서면질의 답변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저도 이것을 서면질의 주셔서 보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사안에 접근을 하는, 이런 개별 기업들과 관련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각각의 정부가 어떤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원칙 문제가 일단 정리가 돼야 돼서, 조금 민감하고 미묘한 면도 있고 해서요. 개별 기업 사안들에 다 직접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 것에 갖는 어려움이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정부가 풀 수 있는 적정한 스탠스를 잡은 후에 같이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 자리에서 즉답이 나오기 어려운 주제라는 것은 아는데 저는 기재위지만 정무위의 위원들도 여야 상관없이 많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통과되신다면 실제 국회 정무위 여야 위원들과 함께 좀 긴밀한 소통을 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각 제기하신 것 중에 우선 처리 사안 한 2개씩을 잡아서 바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은 주식시장 이야기 좀……

화면에 PPT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최근에 주가 보니까 약 3100, 오늘은 한 3120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한 4월 9일인가요, 그때 2294에서 2900까지 왔다가 3100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해서 하나는 내란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꺼였던 것, 2700 정도가 아마 내란 직전의 상황일 텐데 내란으로 인한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복원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2700, 2800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상법 개정 등에 대한 사회적인, 자본시장에서 주주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 공약 또는 약속 또는 그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나 기대 등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후보자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한 20년 동안 내내 금융시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다했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산의 부동산으로 쓸림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강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적어도 50 대 50까지는, 즉 자산을 부동산과 금융으로 좀 나눠서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금융투자협회나 현행 업계에 있는 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한 일관적인 정책 기조를 만들고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오기형 위원 공감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말씀을 죽 주시면 마지막에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예.

그래서 왜 이런 요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시장으로 계속 쓸려있고 자본시장이 안 되느냐, 자본시장을 제대로 못 살리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지요. 이게 PBR이라고 하는 게 자산가치 대비 주식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은 코스피 3100이니까 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0.93이었던 거지요. 이른바 신흥국 평균이 1.82 그다음 선진국 평균이 3.38,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한 자료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코스닥 기업 중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최근까지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70% 정도가 PBR이 1점 미만이었습니다. PBR 1점 미만이라는 것은 청산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은 미래가치를 보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보다 높은 게 정상인 거지요. 그리고 좀 더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거라면 신흥국 평균은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 1 정도 되는데 이게 1.82만 돼도 지금 주가에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믿지 않고 투자를 안 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걸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사의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그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거수기 이사회 때문이다. 그래서 사례들을 보니까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손해 보고 제일모직은 이득을 보는 이런 과정에서의 삼성물산 이사회의 문제점.

거기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보면 물적분할하기 전에는 시가총액이

보니까 48.5조인데 물적분할하고 동시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들의 이익은 다 배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회사는 71조 이렇게 크고 지금 모회사는 14.9조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을 드는 그 사례들입니다. 우리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가 남의 것이라, 사례가 딱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LG화학 모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적분할 100%로 자회사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남의 자식 된 거지요, 남의 소가 되어 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상법 개정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에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오기형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법 개정하겠다고 작년 초에 했다가 하반기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이 컸었고. 그러면 이후에 이런 자본시장에서의 일관된 제도개선의 의지가 있는가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정치와 경제는 별개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경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경제학 이런 얘기도 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러면 정치의 역할은 뭐냐? 시스템을 만들고 정확한 신호, 시그널을 보내고 트러스트,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이제는 부동산 중심에서 증시 중심 이런 등등으로 자산 형성 방법의 주된 축이 변화해 가는 선진국의 초입에 있는 대한민국이 정책적 영점 이동을 해야 하는 핵심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이라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일관된 자본시장의 제도개선을 트러스트라는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 축적이라는 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고.

당에 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토론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금투세 문제도 있었고 등등등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하면서 일관된 문제의식은 그런 자본시장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의 취지를 살려 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기형 위원 예,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배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황운하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 정권이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황운하 위원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검찰총

장 시절 그리고 대통령 시절 검찰권을 활용해서 검찰권을 무기로 과거 군사정권 때 군인들 군사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것처럼 그것 못지않게 윤석열의 총장 시절 대통령 시절 검찰권 남용,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황운하 위원 그 피해자들이 지금도 많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셔서 재판이 중지되었지만 재판을 쭉 받고 계셨고 그 외에 많은 언론인들도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건설노동자들이 폭력배로 몰려 가지고 건 폭으로 몰리면서 재판을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정치인들,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 인사들 지금 많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독재 청산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닌 가라는 차원에서 어저께부터 제가 이러한 검찰독재 청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의 제도 개혁, 제도 개혁은 검찰개혁 입법을 말씀드리는 거였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핵심, 본질은 수사·기소 분리인데 수사·기소 분리 입법의 로드맵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놓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뼈아픈 실패 사례를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제도 장황하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국무총리로 취임하시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시행령 시행규칙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위증교사 이런 사건이 사실은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또 신학림 사건 기억하십니까, 신학림 사건?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황운하 위원 그것도 명예훼손, 윤석열이 과거 수사할 때 그것을 보도한 것이 명예를 훼손했다 하면서, 명예훼손도 사실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언론인들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폭 또 화물연대 노동자들 등등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또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 내야 되는데 김학의 전 범무부차관 사건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런 부분들이 다 정치보복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검찰독재에 따른 정치보복 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석열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해야 하고 공소 취소, 공소기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면은 국가원수에게 부여된 고유의 인사권입니다. 국가원수가 이를 시혜적으로 행사하는 게 사면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사면에 대해서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

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하기 위한 제도, 현대적 의미로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 즉 재판작용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에 대한 사후 교정적 성격 그다음에 형사정책적 목적, 사회통합 등의 목적으로 사면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현재가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학계도 그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의 저지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자로 의식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표적 수사였고 검찰권 남용이었습니다. 수사도 지나쳤고 처벌도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이제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정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등 정치보복 가해자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정치보복의 피해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가해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일단 내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 척결할 것은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와 별도로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는 그 부분 또한 오랫동안 축적된 시대적 방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건들이,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또는 구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문제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사안별 파악과 확인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내란 사건 이외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어떤 수준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 중에서도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된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저는 국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볼 때 어떠한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여러 사안들을, 특정 사건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적절한가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큰 틀에 있어서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그때 국민통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적어도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어제오늘 청문회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그리고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청문위원들을 검증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아시지요? 후보자님,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가리켜서 이것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 손가락을 아주 꺾어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행태가 보면 좌표 찍고 드루킹의 후예 같은 분들이 와서 막 달려들고, 그것을 무슨 작전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싶은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가 청문위원회인데 국무총리후보자가 자격이 있다, 의혹을 벗겨 낸다라는 그런 해명을 해 주는 기구가 아니에요. 해명은 후보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는 기관입니다, 기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도 어드미션 오피스(admission office)가 있는데 입시서류가 기한 내 오지 않으면 입학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무총리후보자가 자격이 있고 해명을 하는 게 우리가 노력을 해 갖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문회 국회에 보고된 지 벌써 꽤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늦게 해 주셔서 뒤에 계신 분들 고생하시는 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해 주셔서 저분들하고 정부 부처에 계신 분들이 막 새벽까지 근무하시고, 늦게 결정을 해 주셔서, 사인을 늦게 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 자료가 하나 왔는데, 증여세 관련된 자료 그리고 1억 5000, 1억 8000에 관련된 대출과 이 변제 관련된 자료 이것도 아직 안 왔고, 그리고 청화대 성적서 등등 해서 왔는데, 어쨌든 그건 안 왔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청화대 성적표가 갔나요?

○**배준영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어쨌든 3차 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안 하면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구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 불명 소득 과세원칙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어요, 혹시? 원천 불명 소득 과세원칙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자산이 증가됐는데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을 벌었는데 8억을 더 써 가지고 13억을 쓰셨으면 그걸 밝힐 책임은 말하자면 납세자한테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납세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 돈하고 지출한 돈하고 다르면 과세 당국에서는, 만약에 국무총리후보자님 한테 과세를 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기관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후보자님은 ‘그것을 나는 내 입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서류도 필요 없고 중인도 필요 없고 니네들이 알아서 밝혀 봐라’, 저희가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저희는 그 자료를 안 내는 것은, 안 내시는 것은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보이콧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사면 문제가 있는데요. 박근혜정부 때 5900명, 문재인 정부 때 6400명, 윤석열 정부 때 1600명 이렇게

맨 첫 번째 시기에 사면을 했는데 박근혜정부 때는 취임 이후 338일째, 문재인 정부 때는 234일째, 윤석열 정부 때는 100일째,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가지고 그걸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박근혜·윤석열 정부 때는 정치인은 일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줄이긴 했어도 정봉주 의원 이런 분들은 사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통합의 범주에는 포함되는 것처럼 국무총리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가 만약에 국무총리가 되면 부의장이 될 텐데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SNS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모든 민주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직접 사면·복권을 관철해 냅시다.’, 21대 대통령 취임 국민통합 내란종식 특별사면복권 서명운동 이런 거 했는데, 그래서 꼭 사면을 해 주실 것처럼 그쪽에 가깝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래서 그게 제 질문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와 자료제출과 증인 제로의 청문회를 가지고 저희보고 하라는 거는 저희를 정말 모욕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 질문을 마치고 회의를 할 텐데 자료를 다 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까 사면과 관련한 황운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린 답변은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딱 이 내용이었습니다.

사건별로 어떤 사건은 억울하고 부당하니 사면·복권되어야 한다라는 접근법은 저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면을 할 경우에는 가상해서 볼 때 국민통합이라는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제가 보는 국민의 민심은 이번 내란과 관련된 부분, 그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면 내지는 어떤 법적 처단이 유예되면 안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가상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국무위원으로 들어갈지 아닐지도 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입장을 그때 표명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배준영 위원 세 번째 범주에서 암시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위원 끝났는데요? 질의를 하면 안 되지요.

○배준영 위원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가정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배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야당,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제대로 규명하려고 하는 청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그 필요성과 이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배**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경고할 수 있다’에 방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18조(주의의무)입니다.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자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143일 체류하셨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30여 일 또는 40여 일 동안 중국에 가서, 청화대 분신술이라고 했던 10대 의혹 중의 한 가지는 해소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의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후보자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출국 기간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박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1, 1’로 되어 있는 건 1박 2일이기 때문에 2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로만 보면 146일이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야당 간사님께서 민주당이 드루킹처럼 좌표를 찍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좌표 찍은 거 없어요. 배준영 간사님에게 댓글을 보니까 인사청문회 이전과 댓글 달린 개수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거나 5·18을 펌훼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 수가 조금 많다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주진우 위원님께서는 30만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는 사실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댓글이 상대적으로 세 배 이상,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는 시간대에는 댓글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댓글이 많은 것은 본인 스스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급성간염이 왜 거론되냐, 고등학교 때부터 아팠다 그리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댓글이 많다……

○**배준영 위원** 그만하세요, 진짜.

○**김현 위원** 좌표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준영 위원** 아니, 간염 얘기를 왜 합니까?

○**김현 위원** 유튜버……

○**배준영 위원** 창피한 줄 아세요.

○**김현 위원** 위원장님, 시간 멈춰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배준영 위원**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간염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김현 위원** 끼어들고……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시간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질의할 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안 하시고……

○**김희정 위원** 타인의 질병과 신체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배준영 위원** 하지 마세요.

○**김현 위원** 아니, 그것은 관보에, 공보에 다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배** 하지 마시고……

○**김현 위원** 아니,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배** 청문위원에 대한 그런 질병이니 뭐 이런 것은……

○**김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좌표를 찍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배** 질병이니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마시고……

○**김현 위원** 좌표 찍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공격에 대한……

○**위원장 이종배**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끼어드는 것만 막아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이종배** 됐고요. 위원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 위원** 제 질의시간은 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배** 그리고 위원장이 김현 위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위원장 아니거든요.

○**김현 위원** 질의시간은 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배** 지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배** 보장하고 있고요.

○**김현 위원** 질의 내용까지는, 나중에……

○**위원장 이종배** 질의 내용도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은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끝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배** 잘못된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이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김현 위원** 끝난 다음에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시간 끝나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배** 발언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에……

○**김현 위원** 발언 중단 못 합니다. 위원장 권한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배** 발언 중단할 수 있습니다.

○**김현 위원** 어느 누구도……

○**위원장 이종배** 위원장이 몇 차례……

○**김현 위원**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끼어들지 마십시오, 배준영 간사님.

○**위원장 이종배** 위원장이 몇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김현 위원** 아니, 유튜브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청문위원의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질병이 아니라 좌표 찍었다니까 제가 좌표 찍지 않았다는 얘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배** 위원장이 발언한 대로 주의해서……

○**김현 위원** 저희 민주당이 좌표를 찍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종배** 주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그것은 다 공개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배** 경고합니다.

○**김현 위원** 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들어갔으니까 질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끝난 뒤에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은 사회를, 진행을 원만히 해 주시는 게 위원장님의 권한이지 마찬가지로 청문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야 간사와 위원장님께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6억을 쌓아 놓고 했다는 것에 관련해서 야당 위원께서 끊임없이 그 것은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 오도된 정보가 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워낙 검찰과 가까운 분들이 권력을 상당 기간 장악하고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지만 후보 시절 또는 대표 시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신의 공격과 테러까지 당하면서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셨고 아마 대통령의 임명 후보자에 대해서 유사한 상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있었던 사안을 두고 23년이 경과해서 국무총리후보자가 과징금과 벌금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점을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하나하나 캐내는 이런 부분이 과연 온당한 청문회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하고 오늘 동아일보에서, ‘지도는 언제 공개하나, 서울시 자료 비공개 논란’ 띠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앞서 한정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싱크홀이 반복되더라도, 각각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어제 오늘 상당한 내용으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분류해서 위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서 서울시 전역의 싱크홀에 대해서 안전지도를 보도하고 있는데 아마 총리후보자께서는 청

문화로 바빠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홍수, 태풍이 오는 계절이고요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중간에 혹시 휴식시간에라도 재난·재해대책본부에다가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이 내용을 잘 보시고 필요한 점이 있다라면 반영해서 대비해 줄 것을 지시해야 되는 것…… 주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국무조정실장에 지금 그 권한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후보자에게도 있다고 보니까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비서실에서는 AI 수석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에…… 정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금 AI 최고 전문가를 장관후보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AI 위원회가 있었지만 사실은 대면회의는 한 번, 서면회의 두 번에 그쳐서 AI 대응을 미흡하게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물관리 제기해 주셨을 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싱크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물관리 통합 문제를 제기해 주신 한정애 위원님의 취지와는 별개로 싱크홀은 그 자체로 별개 사안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반드시 싱크홀 통합지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것과 별개로 재난·재해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좀 점검을 해라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 뒤에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들으셨을 것이고 워낙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챙겨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인준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내일 당장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어디 가서 하수구, 담배꽁초로 막혀 있는 부분 그것 줍는 거라도 좀 해서 전체 공직사회라든가 또는 민간에서 이런 부분부터 신경 쓰자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3강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전문가를 AI 수석으로 임명한 데서 대통령의 모든 의지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선거기간에 대선후보 직속 위원회로도 AI 관련한 위원회가 있었고 그전에 당 시절에도 대표가 직접 사설상 위원장을 맡는 기구가 있었고 윤석열 정권 때에도 AI 관련한 위원회가 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제가 확인해 본 바 거의 돌아가지를 않아서 그 부분은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AI는 컴퓨팅 능력을 높이는 문제가 있어서, GPU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고 데이터 문제가 있고 전력 문제, 큰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어서 저희도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아마 대통령의 어젠다로 풀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총리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배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후보자를 인사청문하는 이런 회의에 있어서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회의장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강조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특히 여야 관계없이 모든 위원님들이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지켜 줄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상호 간에 예우를 다하고 존경하면서 운영되기를 바라서 위원 간에 이런 공격적인 언사, 특히 위원이 모욕을 느낄 그런 언사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강조했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위원장으로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경고를 몇 차례, 여러 차례 했는데도 이런 것을 자꾸 무시해서 발언하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지금 인내를 하는 데까지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인내할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AI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는 데이터 같은 게 중국에 비해서 활용할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할지 이런 것을 뒷받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력 문제, 이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력을 막대하게 이용하잖아요. 전력이 없으면 우리 AI 발전시킬 수 없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11차 전기본에서도 2038년 목표로 해서는 2023년 대비해서 한 20%는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전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을지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말씀 주신 대로 AI 시대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전력 수요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에 대한 절대 수요가 높아지는 시대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전력을 확대된 형태로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구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요와 공급의 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구조 문제도 존재하고, 현재 있는 한전 등 각각의 운영과 적자 문제 등등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된 이 핵심 지역들에 어떻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새 정부, 특히나 AI를 다루고 또는 산업을 다루고 또는 전력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의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고 AI, 전력, 지역균형발전까지를 연계해서 풀어 나갈 에너지고속도로라는 구상도 갖고 계시고요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배경에는 사실상 에너지믹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조금 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11차 전기본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과거 같으면 그 구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논란이 길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지난 국회에서 일정한 상호 양해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를 포함해서 당의 지도부에 있던 사람 중의 하나로서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한 후에 큰 방향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RE100 등을 포함해서 에너지믹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위원장 이종배 그렇게 조정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래서 일정하게 반영돼 있는 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탈탄소 문제를 하고 기존의 원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몇 가지 쟁점이 또 남아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배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AI 발전을 위해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을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래서 전력망도 중요하고요 또 에너지믹스도 중요하고요.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장점으로 두고 있는 원전도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되고, 신재생에너지도 늘려야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 각각에 대해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이미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인식이 지난 대선 기간에 각각의 정책이나 공약이나 또는 11차 전기본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하면서 이렇게 통과되는 것을 인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아, 그렇게 보고 있구나. 이해하고는 있구나’……

○위원장 이종배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탈원전 가지고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불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다만 에너지믹스에 재생에너지 증가 확대 방향이라는 방향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여전히 유지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이미 말씀드렸고……

○위원장 이종배 재생에너지는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말씀 주신 가장 지혜로운 비율과 방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아마 정부 또 새로운 기후에너지부로 재편될 환경부 또 산자부 등등 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종배 세계적으로 탈원전 했던 대표적인 나라, 이태리라든지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심지어 일본도…… 그리고 미국도 지난번에 발표한 것 보니까 현재 94기인데 앞으로 25년간 300기까지 늘리겠다 발표한 것 보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각국의 에너지에 대한 정책 방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원전으로, 값싼 원전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현실 잘 이해를 하시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원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원전산업도 발전시키고 앞으로 수출을 하려면 우리 내부에서 원전의 생태계를 잘 구축해 놔야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후보자님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포괄적인 방향 말씀 주신 것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탈원전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다 그렇게……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지난 대선 기간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탈원전은 아니다?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11차 전기본, 2기 늘리는 것도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알면 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일단 11차 전기본은 현재 이미 통과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2기, 대형 2기.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예, 이것 전기본은 통과된 것이니까요.

○**위원장 이종배** 예, 이상으로……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김현 간사가 자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현 위원**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이종배**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김희정 위원** 예.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세요, 그러면. 짧게 하세요.

○**김희정 위원** 김희정입니다.

후보자 출입국기록이 왔는데, 마치 뭔가 증명이 된 것처럼 여당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말씀드렸듯이 후보가 LLM 기간에 있었던 기간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총 11회 중국 방문을 했고 여기에 제출된 날짜로는 15일로 표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1박을 해서 1일씩 더 하더라도 총 26일 머무른 것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좀 시간이, 상임위 시간이 좀 필요하신……

○**김현 위원** 필요 없습니다. 상임위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야당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깐 정회를 하겠는데 정회 시간에 충분한 자료 제공이 있기를 바라면서……

5시까지?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저희는 5시까지 자료……

○**김현 위원** 정회는 5시까지 하시고요.

○**배준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안 들어오면 저희는 후보자가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희는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다 끝났는데 무슨……

○**배준영 위원** 아니, 여태까지 열흘 이상을 기다렸어요.

○**위원장 이종배**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정회하시기 전에 좀……

○**위원장 이종배** 예,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자료 관련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배** 예.

○**국무총리후보자 김민석** 제가 아까 그냥 단순히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이러이렇게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야당 위원님들 가운데 아까 대략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여지는 6억을 현금 쟁여 놨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공동 시정 또는 공동 명료화 또는 당에 대한 요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를 제게 혹시 알려 주시면 굉장히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5시에 속개해서 2차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3인)**

곽규택 김현 김희정 박균택 박선원 배준영 오기형 이종배 전용기 주진우
채현일 한정애 황운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최기도

○**출석 공직후보자**

김민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국정운영실장 김영수

정부업무평가실장 윤순희

사회조정실장 심종섭

규제조정실장 손동균

경제조정실장 김용수

국제개발협력본부

본부장 박진호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 박용우

민정민원비서관 손진욱